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교육위원회 –

2024년 합동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교육위원회]

<도시재생의 태생 영국, 그리고 지역사회를 품은 복합문화공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 6명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7박 9일 동안 영국으로 국외 정책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영국의 도시재생 우수사례와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있는 박물관 등의 노하우 및 지역사회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공립박물관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게 이번 연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연수 일정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런던시티대학 도시건축정책연구소의 도시재생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알버트 도크(Albert Dock), 샐포드 부두(Salford Quay), 테이트모던(Tate Modern) 등 영국의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시찰하였으며, 지역 공립 박물관인 애쉬몰리언 박물관(Ashmolean Museum)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와 함께 학교시설 복합화를 최초로 실시한 런던에 있는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Oasis Community Learning),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Rose Hill Community Center) 등을 시찰했는데, 이번 정책 연수는 문화·체육 분야 및 도시재생 분야와 함께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Oxford)에 위치한 애쉬몰리언 박물관(Ashmolean Museum)은 1683년 기증된 수집품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박물관이자 세계 최초 대학박물관인 만큼 역사적으로 가치가 뛰어납니다.

애쉬몰리언 박물관은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박물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보존' 기능뿐만 아니라 이를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전시' 기능,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교육' 기능들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특히 박물관과 지역사회의 소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등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아울러, 영국의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알려진 알버트 도크(Albert Dock)과 테이트 리버풀(Tate Liverpool) 및 샐포드 부두(Salford Quay) 등을 시찰하며 영국의 도시재생 사업과, 사후관리 방안, 주민 친화적인 공간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또한 런던시티대학 도시건축정책연구소(University of London City, Urban Research Lab)의 소장이자 대학교수인 김정후 교수와의 심도 있는 간담을 통해 영국 도시재생 정책의 변천사 및 주요 관점,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으며,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에 대하여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우리나라는 역사적·사회적·문화적 환경과 경험이 달라 영국 사례를 곧바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원칙은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노후화되거나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있는 지역을 다시 활기찬 도시로 바꾸기 위한 정책과 지역 박물관 등을 단순히 전시하는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과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과정의 중심에 '지역주민'을 두었는데, 우리 역시 이런 철학과 원칙을 잊지 않는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반드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전북형 도시재생 및 문화·체육·관광 정책들을 발굴하고,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도시재생 및 문화·체육·관광 정책에서 취할 것은 취하되,

우리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감안해 정책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2024년 문화건설안전위원회·교육위원회 합동 국외정책연수을 통해 획득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을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에 적극 반영시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주거·문화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수기간 중 긴밀한 협조를 해주신 영국 방문기관 관계자와 연수 위원, 직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 5.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 이 병 도

<영국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선진정책과 성공사례 해외 정책연수를 다녀와서>



교육위원회 위원 7명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지난 2024년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7박 9일의 여정으로 영국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선진정책과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영국 해외 정책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수기간 중 긴밀한 협조를 해주신 연수 위원 및 모든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수 일정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와 함께 합동으로 해외 정책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영국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시설 등을 시찰하였고, 교육위원회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최초로 실시한 영국의 관련 시설로서 런던에 있는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Oasis Community Learning), 옥스포드에 있는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Rose Hill Community Center) 등을 중심으로 시찰하였습니다. 애초에는 교육위원회의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해외연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시찰했던 영국의 도시재생 관련 시설 등을 동행하여 견학하면서 학교시설 복합화와 도시재생을 융합시켜 재탄생(Renaissance)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뜻깊은 합동 정책연수였습니다.

영국 수도 런던에 있는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Oasis Community Learning)은 2004년 “지역사회 중심의 뛰어난 교육”이라는 비전을 품고 설립된 단체이며, 현재 영국 전역의 5개 주요 지역에서 초등, 중등 교육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오아이스 커뮤니티 러닝에는 32,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학교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중등 학생과 교사에게 아이패드(iPad)를 제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오아시스 호라이즌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Rose Hill Community Center)는 현대적인 커뮤니티 센터로 최첨단 체육관, 회의 및 컨퍼런스 시설, 사교 클럽, 상담 센터, 청소년 스위트, 헬스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화장실, 샤워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산모를 위한 모유 수유실과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안적인 측면을 강화하여 비디오 뷰를 통해 외부시설, 리셉션 공간 및 체육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 중에 있고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전북은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과 대안 등을 모티브로 삼아 교육주체와 지역주민이 상생(win-win)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갖춘 공동체로서의 도시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주위의 관심과 정책제언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연수하면서 느꼈던 점을 소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북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학교시설 복합화는 그 필요성이나 지역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과 무관심 등으로 많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선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용자인 교육주체와 지역주민의 참가와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복합화의 일련의 과정이나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서비스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 스포츠, 레크레이션, 레저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설 이용을 최대한 유도하여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어서 커뮤니티의 이해나 인식, 지원, 공헌, 문제의 해결, 교류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이 되어야 하며, 특히 장애인과 특별한 요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학교복합시설의 모든 결정, 관리·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과 추진 현황을 시찰해 보니, 기획에서 건설, 관리·운영까지 주무기관과 학교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수용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시설과 정책, 행정,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해 국제적인 견문을 넓힘으로써 학교복합시설에 부응하는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2024년 문화건설안전위원회·교육위원회 합동 해외 정책연수에서 견학과 시찰 등을 통하여 체득한 학교시설 복합화와 도시재생 등에 대한 양질의 정책, 행정, 프로그램 등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교육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신뢰받고 강한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인사말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5.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 명 지

목 차

Ⅰ. 연수개요 ····· 1

Ⅱ. 연수 국가 연구(영국, UK) ····· 17

Ⅲ. 방문기관 ····· 36

1.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 ····· 36

2.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 ····· 48

3. 애쉬몰리언 박물관 ····· 58

4. 알버트 도크 & 테이트 리버플 ····· 68

5. 샐포드 부두 ····· 73

6. 런던시립대학 도시건축정책연구소 ····· 78

7. 테이트 모던 ····· 86

Ⅳ. 국외정책연수 관련 연구자료 ····· 91

1.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91

2. 교 육 위 원 회 ····· 101

Ⅴ. 시사점 ····· 120

Ⅰ 연수개요

□ 연수동기 및 배경

<선도적인 영국 도시재생 정책>

○ 19세기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열악한 주택환경 등 영국의 도시들은 많은 도시문제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30년대부터 도시재생정책 개념을 적용했고, 도시 리뉴얼, 도시 재개발, 도시재생, 도시 르네상스, 그리고 현재의 도시 레벨링업(Levelling-Up) 정책 등 여러 형태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대한민국은 2002년 서울 뉴타운사업 이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부산·인천·대전 등 대도시에서도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

○ 전북의 도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생겨난 혁신도시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오래된 도시로, 긴 시간을 거쳐 지역의 역사와 스토리를 갖고 있지만, 낡고 오래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것들이 많은 도시가 되어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임

○ 전북 역시 오래 전부터 도시재생에 주목했으나, 2014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2023년까지

55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늦게 시작한 만큼 앞선 선진화된 영국의 사례와 주민친화적인 정책들을 견학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연수를 실시하게 됨

<우수한 문화유산 · 예술 활용>

○ 영국의 박물관에는 오랜 역사와 많은 문화유산을 훌륭하게 보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영박물관 뿐만 아니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애쉬몰린 박물관(Ashmolean Museum)과 자연사박물관, 현대미술작품이 있는 테이트 모던(Tate Modern), 테이트 리버풀(Tate Liverpool) 등 미술관 지역 곳곳에 자리잡고 있음

○ 이러한 문화유산을 훌륭하게 보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영국박물관 등의 운영정책 트랜드를 견학하고 우리 도 박물관·미술관 내 문화유산 보존 방안과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 연구하고자 함

○ 영국의 지역 공공박물관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행사 프로그램 등 지역주민 커뮤니티 기능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 이런 부분은 견학하고 운영사항 등을 연구하여 도내 지역 박물관·미술관에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학교시설 복합화>

○ 대한민국의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의식수준이나 생활수준 등이 고양되어 교육을 포함하여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서비스 수요 증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학생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춘 방안으로서 학교시설 복합화 또는 학교복합시설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2024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을 보면,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와 지역에 필요한 교육·돌봄, 문화·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함.[1] 이는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2023년 3월 17일에 발표함으로써 구체화되기에 이르렀음.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복합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지방자치단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함.

○ 즉,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4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 2024. 1., 2쪽.

는 다양한 시설을 학교부지에 복합화함으로써 학교시설의 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학교가 지역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하는 시설을 가리킴.

○ 학교복합시설법이 제정됨으로써 지금까지 학교시설복합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분리되어 있던 근거법을 정비함으로써 ① 학교복합시설 설치 등 주체의 명확화, ② 지방자치단체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소유권 협의로 사업 추진 및 결정, ③ 시설조사 연구·유지관리 운영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의 위탁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2)]

○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른 주요성과로서 ①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② 업무 담당자 및 대국민 인식 개선, ③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39교 선정(2023. 9. 14.) 등임.[3)]

○ 정부 주도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지역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사업 구체화는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사업 조성비 지원 확대 및 관리·운영비

2) 변경화, "학교시설 복합화 제도 검토 및 정책 현황", 교육녹색환경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2023. 9. 30., 2쪽.
3)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앞의 가이드라인, 3~6쪽.

지원, 충분한 사업 준비기간 확보,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제공 등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위한 유인책도 필요한 것도 사실임.

○ 현재 한국은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태생 단계라고 한다면, 교육위원회가 시찰하고 견학했던 영국은 1930~1940년대부터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움직임이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을 만큼 학교시설 복합화의 완성단계이자 이상적 운영모델 형태를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영국의 학교복합시설 관련 건물, 시설, 관련 프로그램, 운영형태 등에 대하여 문헌이나 언론,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장성과 구체성을 직접 시찰하고 견학함으로써 시작단계에 있는 대한민국의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교육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관련 세부지침 등에 대하여 교육위원회가 선도적으로 정책제안을 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요구(needs) 등에 부응하는 학교복합시설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 정책연수를 실시하게 된 것임.

【 한국의 학교복합시설 추진 현황 】 4)

기간	추진 주체	주요 내용
2000년 ~현재	교육청	▶ 국내 최초의 학교복합시설인 금호교육문화회관 개관 이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서로에게 필요한 시설을 학교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전북으로 확산
2006년 ~2008년	기획예산처	▶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의 기반시설을 미리 확보하고, 소요 비용은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BTL)을 적용. 이러한 BTL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학교에 생활SOC*를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 시행
2020년 ~2022년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생활SOC 복합시설을 신속히 공급 가능하며 동시에 교육수요도 충족이 가능한 학교 부지·시설을 활용하여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
2021년 ~2025년	교육부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 계획' 가운데 학교공동체 혁신(지역·학교 상황을 고려한 학교의 시설 복합화)을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학교시설을 지역과 공유, 주말, 일과 이후에도 학부모와 함께 학교시설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가능하고, 지역에 다양한 공공시설을 제공하여 평생교육 및 자기계발을 지원
2023년 ~2027년		▶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기존 학교복합시설 설치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229개)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 심화하는 지방소멸 현상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설치 지원 ● 신도시: 학교 신설단계에서부터 지역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한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재정효율화 도모 ● 구도심: 도심공동화에 의한 학생수 감소에 따른 유휴공간에 주민이 요구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여 도심 거점 역할 주도 ● 농산어촌: 학교에 지역 공공·문화·복지 인프라를 집약하여 학교를 마을 거점 기반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 주도

***생활SOC: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 +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말함.**

4) 김정훈, "학교복합시설의 국내·외 사례 탐색", 2023년 전북교육정책 오늘 5월호, 전라북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2023. 5., 6쪽.

□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4. 4. 22.(월) ~ 4. 30.(화) / 7박 9일

○ 연 수 국 : 영국

○ 연수대상 : 21명(명단 별첨)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9명(의원 6, 전문위원실 2, 도청 2)
- 교육위원회 : 10명(의원 7, 전문위원실 2, 교육청 2)

○ 연수내용

- 학교 유휴시설을 지역사회 요구에 맞게 공유하고 문화·체육·복지 등 커뮤니티 허브로서 성공한 사례 연구
- 다양한 교육환경 및 방과후·돌봄 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양하게 복합화하여 성공한 사례 연구
- 문화·체육분야와 연계한 주민친화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인구소멸에 대응하여 성공한 선진 사례 연구
- 문화재 관리시스템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박물관 등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사회 커뮤니티 역할·기능 활성화 선진 우수사례 연구

□ 연수내용

1) 도시재생 관련 영국의 선진사례 습득

○ **주민친화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활성화 및 인구소멸에 대응하여 성공한 선진 사례 연구**

-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유기적인 공간 활용 및 내항 등 노후화된 원도심을 성공적으로 활성화 시킨 영국의 선진사례를 견학하고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선도적인 도시재생 정책을 구상하고자 함
-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문화·체육분야 복합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와 참여커뮤니티 활성을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요구되어지고 있음

○ **문화재 관리시스템 및 공공박물관 운영 방향 등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영국박물관 및 공립박물관에는 오랜 역사와 많은 문화유산을 훌륭하게 보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러한 우수 사례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박물관 운영 방안에 접목하고자 함
- 애쉬몰린 박물관(Ashmolean Museum) 등 **지역 공공박물관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행사 프로그램 등 지역주민 커뮤니티 기능**도 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학교 유휴시설을 지역사회 요구에 맞게 공유하고 커뮤니티 허브로서 성공한 사례 연구**

-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지역사회가 해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함
- 저출생·고령화 및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학교는 학생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육 시설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체육, 복지, 문화 등을 담당하는 기능**을 요구받게 되었음
- 학교는 단순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교육의 장과 정보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음
- 학교 유휴시설의 대부분이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으며, 배드민턴, 축구 등 일부 **생활체육 차원에서 제한적인 활용만 되고 있을 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환경개선 및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공공시설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함

2)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영국의 선진사례 시찰 및 견학

○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점과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새로운 역할 수행에 대응한 학교시설 복합화 성공 사례 연구**

- 지식기반사회의 구조 다원화와 학습사회로의 변화 과정 속에서 학교는 교수·학습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본질적 기능 수행 이외에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새로운 역

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음. 학교시설 복합화는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고자 시도되는 학교시설정책 유형이면서 사업이기도 함.

- 학교시설 복합화는 다양한 교육공간의 확보, 부지매입 및 시설건립 비용 절감, 주민의 시설 이용 편의 증진에 유용한 방안으로서 평가받고 있음. 동시에 학생 보호와 안전 확보, 복합시설 보유 학교의 책임과 업무 부담 적정화, 사업 주체들 사이의 협의체계 및 업무 추진 기반 구축 등의 과제도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임.
-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복합시설의 건립, 복합시설의 유지 및 관리, 복합시설의 운영, 복합시설의 이용 등에 다양한 주제가 관여하므로 각 주체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면밀히 수행되어야 함.
-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있어서 다양하고 복잡한 해결문제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학교시설 복합화가 시작되었던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선진사례를 시찰하고 견학함으로써 교육정책적 대안과 시사점 등을 체득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에게 정책제안하고, 학교시설 복합화의 발전상을 도모하는 것이 영국에 대한 해외 정책연수의 목적임.

○ **영국의 학교복합시설 유형 등 우수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하여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영국의 학교복합시설 유형에는 ① 학교시설+커뮤니티룸, ② 학교시설+스포츠(레저)센터, ③ 커뮤니티스쿨, ④ 대규모 복합시설, ⑤ 별동형 복합시설 등의 5가지 유형임.
- 영국의 학교복합시설 5가지 유형 중, 대표적인 학교시설+커뮤니티룸의 유형인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을 방문 및 견학하고 간담회 등을 진행함으로써 한국에서도 동일한 학교시설 복합화 유형이 계획·준비·실행·평가 등에 있어서 영국의 오아이스 커뮤니티 러닝의 선진사례의 장·단점과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영국의 학교복합시설 5가지 유형 중, 대표적인 학교시설+스포츠(레저)센터 유형인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 및 견학하고 간담회 등을 진행함으로써 한국에서도 동일한 학교시설 복합화 유형이 계획·준비·실행·평가 등에 있어서 영국의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의 선진사례의 장·단점과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우수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학교시설 복합화와 도시재생과의 연계 방안 모색 등을 통한 성공적인 선진사례 연구**

- 교육위원회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와 합동으로 해외 정책연수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해외 정책연수 주안점인 영국의 도시재생과 학교시설 복합화를 연계하여 시찰 및 견학하였음.

-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5)]
- 도시재생의 경제적 활성화 수단으로서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과 연계토록 되어 있으나, 근린재생의 사회적 공동체 활성화 수단으로서 전통적으로 근린생활권의 중심시설로 인식되어 온 학교시설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판단의 범주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 학교 중심의 도시재생을 선제적으로 제안함으로써 학습과 지역발전 사이의 상생(win-win)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학교시설 복합화와 도시재생과의 연계 관계[6)]는 다음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위원회는 그 연계 관계에 대하여도 영국의 선진사례를 견학·고찰하였음.

  ① 학교시설 복합화는 도시에서의 경제적 번영과 고용을 강화시킴. 개인적 입장에서는 평생학습을 통한 개인의 평생 고용

5) 윤석윤,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학교시설 복합화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제15권 제1호(통권 제35호), 한국주거환경학회지, 2017. 3., 98쪽.
6) 윤석윤, 앞의 논문, 100쪽 참조.

가능성 제고를, 도시·마을 차원에서는 전체 주민의 인적자본 축적 및 공유로 인한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임.

② 학교시설 복합화는 도시에서의 평등성·사회적 통합성을 제고시키며 도시재생을 증진시킴. 사회적 갈등 및 소외가 완화되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이웃 간에 정이 넘치는 도시, 사회적 안정, 사회적 통합 및 결속을 자랑으로 하는 도시건설로 사회유지 비용을 감축하는 효과를 갖게 됨.

③ 학교시설 복합화는 지역과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시킴.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하여 생애에 걸쳐서 성장과 발달을 멈추지 않는 주민, 학습을 통하여 무지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로운 주민, 학습한 결과를 이웃에게 분양하고 공유할 줄 아는 주민, 자아실현을 넘어서 학습공동체의 실현을 추구하는 주민상(住民像)을 정립할 수 있게 됨.

④ 학교시설 복합화는 도시행정의 개선과 지역으로의 권한이양에 기여하게 됨. 도시 전체가 하나의 학습과 교육의 장이 되고, 주민들의 민주시민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시민들의 주민자치 및 정치과정에의 참여, 정치적·사회적 통합 및 증진을 목표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선진지역으로 발전하게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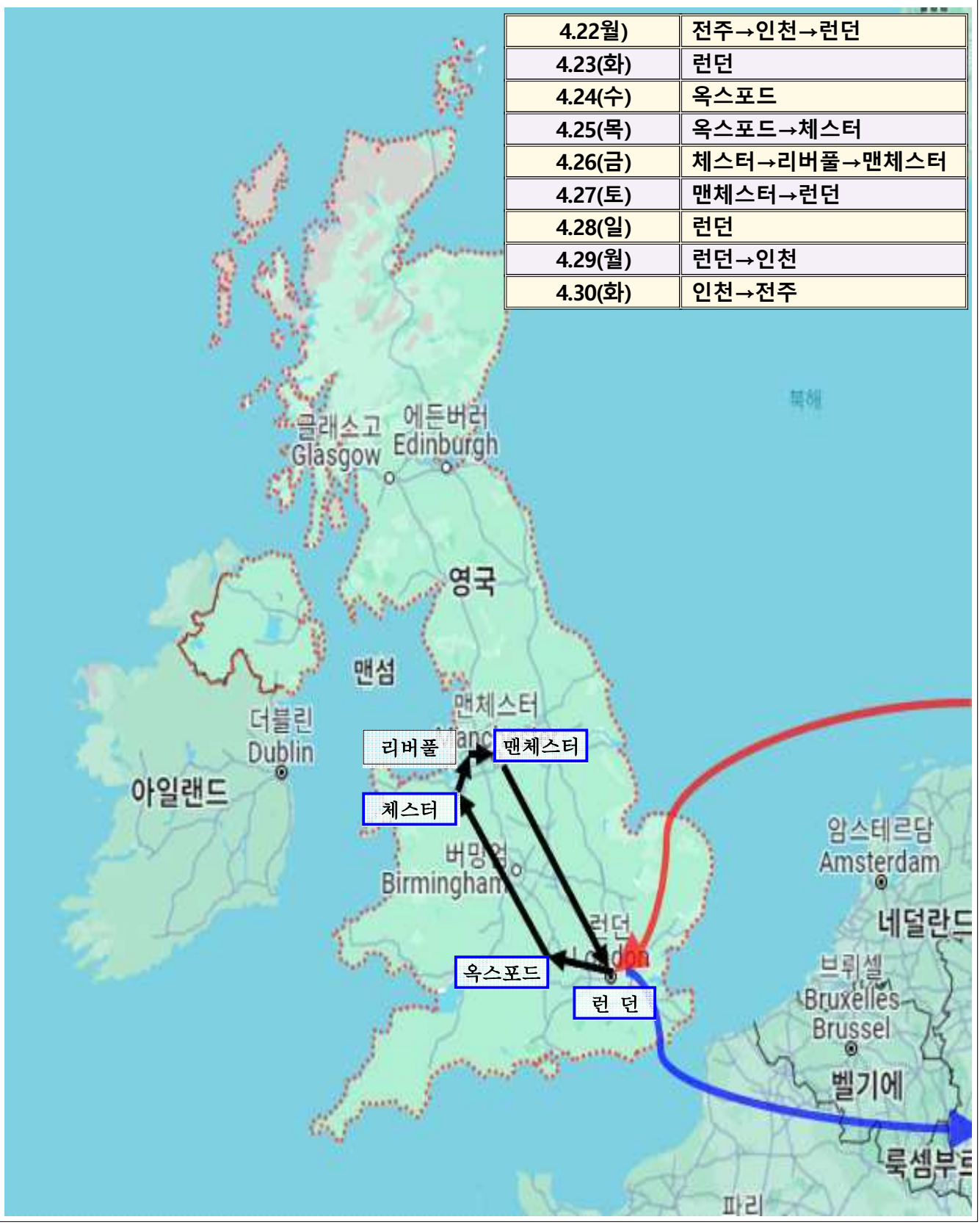
□ 연수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업무내용
계		21 명	남17 여 4	
문화건설안전 위원회 (6명)	위원장	이병도	남	· 연수 대표 활동 및 기관 방문 질의·소통
	부위원장	김정기	남	· 기관 방문 질의 · 소통 등
	위원	이명연	남	· 기관 방문 질의 · 소통 등
	위원	문승우	남	· 기관 방문 질의 · 소통 등
	위원	윤수봉	남	· 기관 방문 질의 · 소통 등
	위원	이수진	여	· 기관 방문 질의 · 소통 등
교육 위원회 (7명)	위원장	김명지	남	· 연수 대표 활동 및 기관 방문 질의·소통
	부위원장	박정희	여	· 기관 방문 질의 · 소통 등
	위원	이정린	남	· 기관 방문 질의 · 소통 등
	위원	장연국	남	· 기관 방문 질의 · 소통 등
	위원	전용태	남	· 기관 방문 질의 · 소통 등
	위원	진형석	남	· 기관 방문 질의 · 소통 등
	위원	김슬지	여	· 기관 방문 질의 · 소통 등
문화건설안전 전문위원실 (2명)	정책지원관	김환표	남	· 연수 진행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주무관	강정한	남	· 연수 진행 및 경비 집행
교육 전문위원실 (2명)	정책지원관	김세권	남	· 연수 진행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주무관	김정수	남	· 연수 진행 및 경비 집행
도청 (2명)	과장	염기남	남	· 기관 방문 질의 · 소통 등
	팀장	김길진	남	· 기관 방문 질의 · 소통 등
교육청 (2명)	과장	임경진	남	· 기관 방문 질의 · 소통 등
	팀장	김선우	여	· 기관 방문 질의 · 소통 등

□ 연수일정

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4/22(월)	전주 인천	런던		- 출국 / 런던 히드로공항 도착	
4/23(화)	런던	런던	Oasis Community Learning	▸【기관방문】 -학교시설에 문화·체육·소통 등을 위한 복합공간을 구축한 성공 사례 연구	기관 관계자
4/24(수)	런던	옥스포드	Rose Hill Community Center	▸【기관방문】 -학교시설에 문화·체육·소통 등을 위한 복합공간을 구축한 성공 사례 연구	기관 관계자
4/25(목)	옥스포드	옥스포드	Ashmolean Museum	▸【현장시찰】 -공립박물관이자 지역박물관으로써 문화재 및 예술 등을 전시하며,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기능을 하고 있는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연구	박물관 관계자
4/26(금)	옥스포드	리버풀	Tate Liverpool	▸【현장시찰】 -긴 침체기에서 다시금 유럽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회생시킨 문화재생 우수사례 연구	현장시찰
		맨체스터	Salford Quay	▸【현장시찰】 -쇠퇴한 항구시설을 활용하여 문화관광 공간과 상업시설을 확보해 성공한 도시재생 사례 연구	현장시찰
4/27(토)	맨체스터	런던	기관휴일	▸【연수 간담회】 -학교 복합시설 적용방안 논의	
4/28(일)	런던	런던	기관휴일	▸【연수 간담회】 -도시재생 연계 및 활성화 방안 논의	
4/29(월)	런던	런던	University of London	▸【기관방문】 -런던의 도시재생 및 도시경관 조성 사례를 듣고,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대해 연구	이정후 교수
			Tate Modern	▸【현장시찰】 -폐쇄된 화력발전소를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역랜드마크가 된 도시재생 사례 연구	현장시찰
4/30(화)	런던	인천 전주		- 귀국 / 인천공항 도착	

□ 이동경로


4.22월) 전주→인천→런던
4.23(화) 런던
4.24(수) 옥스포드
4.25(목) 옥스포드→체스터
4.26(금) 체스터→리버풀→맨체스터
4.27(토) 맨체스터→런던
4.28(일) 런던
4.29(월) 런던→인천
4.30(화) 인천→전주
글래스고
Glasgow
에든버러
Edinburgh
영국
맨섬
더블린
Dublin
아일랜드
맨체스터
리버풀
맨체스터
체스터
버밍엄
Birmingham
런던
옥스포드
런 던
암스테르담
Amsterdam
네덜란드
브뤼셀
Bruxelles
Brussel
벨기에
룩셈부르
파리

Ⅱ 연수국가 연구

□ 개요

- **국　　명** : 영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위　　치** : 유럽 북서쪽에 위치한 섬나라(북위 51° 30′ 26″ 서경 0° 07′ 39″)
- **수　　도** : 런던(London)
- **인　　구** : 67,736,802명(2023년) (세계 21위)
- **면　　적** : 243,891km² (한반도의 1.1배)
- **기　　후** : 해양성 기후(겨울 10℃ ~ 여름 35℃)
- **인　　종** : 백인 83.3%, 아시아계 8.5%, 흑인 3.7%, 혼혈 2.6%
- **공 용 어** : 영어
- **종　　교** : 기독교 34.2%, 무종교 50.2%, 이슬람 6.5%, 힌두교 1.7%, 기타 7.4%
- **시　　차** : 우리나라 시각 -9(서머타임 -8)
- **교　　육** : 6-5-2-3 학제, 의무교육 11년(초등 6년, 중등 5년)
- **화폐단위** : 파운드(GBP, £)
- **GDP($)** : $3조 4,950억 / 세계 6위(2024년 4월)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양원제, 단일국가

	
국기	지도

□ 역사

영국 역사는 그레이트브리튼 왕국 성립 이후부터 현재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에 이르는 브리튼 제도의 역사다. 현재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져 있다. 1707년 연합법에 의해 웨일즈 및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이 되었으며, 1800년 연합법으로 아일랜드 왕국이 연합되어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 왕국이 되었다. 이후 1922년, 아일랜드 독립전쟁의 결과 아일랜드 공화국이 독립하여 북아일랜드만이 영국에 속하게 됨으로써 현재의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이 되었다.

1707년 연합법의 공표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연합하여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이 성립되던 당시에 웨일스는 이미 1535년 웨일스법에 의해 잉글랜드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아일랜드 역시 1536년 잉글랜드에 의해 다시 정복되어 아일랜드 왕국의 군주를 잉글랜드 왕국의 군주가 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만이 별개의 왕국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1603년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가 후사없이 사망하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을 겸하면서 두 왕국이 한 왕가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연합왕국으로서 영국의 두 번째 단계는 1800년 연합법을 통해 1801년 1월 1일부터 아일랜드 왕국을 연합왕국의 일부로서 합병한 것이었다. 이로써 영국의 정식명칭은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이 되었으며, 이후 아일랜드 독립전쟁의 결과 아일랜드가

독립할 때까지 이 체제가 지속되었다.

아일랜드 왕국의 합병은 1170년 노르만 왕조이래 지속되어 온 잉글랜드의 왕의 아일랜드 침공 및 정복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노르만 왕조의 정복 후 잉글랜드의 왕은 아일랜드를 통치하였으며, 새로운 연합왕국이 된 영국의 국왕 역시 이미 17세기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개신교 교도를 얼스터 지역에 이주시켰다. 이들 개신교도들은 아일랜드 주민의 로마 가톨릭 신앙뿐 아니라 아일랜드 고유의 문화와 적잖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 1800년 연합법에 의한 아일랜드 합병은 정치, 법률적으로도 아일랜드가 영국의 일부 지방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1641년 아일랜드 봉기 이후 아일랜드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아일랜드 의회에 대한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였다. 아일랜드의 새로운 지배계급이 된 개신교 이주민들은 종종 개신교 패권주의로 불렸다. 18세기에 이르러서도 가톨릭 교도에 대한 정치 참여의 금지는 지속되었으며 영국 성공회의 신자가 아닌 이른바 "비국교도" 전체로 정치 참여 금지가 확대되었다. 아일랜드인들은 영국의 이러한 조치에 맞서 아일랜드 단결 협회 등을 만들어 저항하였으며 결국 1798년 아일랜드 봉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1798년 아일랜드 봉기는 당시 유럽을 휩쓸고 있던 미국 독립과 프랑스 대혁명에 고무받은 것이었으나 영국에 의해 진압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공회 교도만으로 이루어진 아일랜드 의회는 영국

과의 합병에 동의하고 영국은 1800년 연합법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는 아일랜드 주민은 극소수였다.





1901년 빅토리아 여왕이 사망함으로써 빅토리아 시대 역시 막을 내렸다. 20세기 초, 대영 제국은 여전히 세계 제 1의 제국으로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1921년 당시에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넘기는 4억 5천8백만 명 이상, 지구 육지 면적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3,670만 제곱 킬로미터의 영토를 차지했다.
20세기 초반은 두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던 전쟁의 시대였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으며 이 전쟁에서 영국은 사상 최초의 국가 총력전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역사상 최초로 공중전과 탱크, 화학 무기가 등장한 전쟁이었다. 1922년 아일랜드 공화국이 독립함으로써 영국의 정식명칭은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이 된다. 영국은 1939년에서 1945년에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하였으나 그 피해 또한 극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인도를 비롯한 많은 식민지들이 독립하였다. 그러나,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영연방에 속해 있다. 1950년대 집권 노동당은 복지 국가를 내세워 대대

적인 사회 복지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복지 정책은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으로 대변된다. 1980년대 집권에 성공한 마거릿 대처의 보수정권은 사회 복지를 대폭 후퇴시키고 많은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대처리즘에 입각한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은 신자유주의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1945년에 영국에서의 복지 국가와 세계 최초이면서 가장 광범위한 의료 제도의 출현을, 경제 복구의 요구가 영국 연방 도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민족 국가 영국을 만드는 동안 보여주었다. 전후 영국의 정치적 역할의 한계가 1956년 수에즈 사태에서 확실해짐에 따라 영어의 국제적 통용은, 동시에 1960년대에 영국의 대중문화는 외국에까지 퍼지는 동안, 영문학이나 영국 문화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었음을 뜻한다. 1970년대에 국제 경제의 하향세 이후 경기 침체와 산업 쟁의의 시대에 뒤이어 1980년대는 마거릿 대처 수상이 지도력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전후 정치적 경제적인 전환점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지지자는 그녀가 경제 부흥을 이루었다고 하고, 비판자는 그녀 때문에 사회불균형이 더 커졌다고 말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나아가 이러한 경향이 토니 블레어의 지도 아래 대부분 계속되었다.

영국은 1973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 연합(EU)의 구성원이었다. 오늘날 노동당 내각의 태도는 유럽연합과의 통합으로, 보수당은 몇몇 권리와 자격의 반환으로 그리고 자유민주당은 현재 정책의 지지쪽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6년 영국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되면서 영국은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 정치

영국의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Constitutional Monarchy) 이며, 정부의 형태는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Government)이다. 의회는 '의회주권주의(Parlianmentary Sovereignty)'라는 영국의 헌법적 전통에 따라 최고의 법적 지위를 갖는 기관이며, 국왕(Monarch), 상원의원(House of Lords), 하원의원(House of Commons)-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의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영국 국왕은 엘리자베스2세 여왕(1926~2022) 서거 이후 찰스3세 국왕이 왕위에 올랐으며, 총리는 보수당 대표인 리시 수낵(Rishi Sunak)이 제79대 총리로 역임하고 있다.

영국은 5년마다 총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선거구제로 비례대표가 따로 없이 한 지역구마다 한면의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고, 다수득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주요 정당으로는 보수당(The Conservative Party), 노동당(The Labour Party),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등이 있다.

정원 650명, 임기 5년으로 정해진 하원의원과 달리 상원의원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성직, 특권층(세속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원의원 수[7]도 수시로 변경된다.

영국은 성문헌법(Written Constitution)의 부재[8]로 사법부가 위헌법률 심사를 하지 않고 상원이 영국 사법제도의 최고 기구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삼권분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

7) `23.10월 기준 상원의원 수 - 785명
8) 영국은 형식적인 단일 헌법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불문헌법' 또는 '관습헌법'으로 분류된다.

으나, 2009년 대법원이 상원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영국의 지방선거는 지역마다 선거방식이 다르다, 지방의회 의원(Councilor)은 주로 총선과 같은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선출하며, 잉글랜드(England) 지역의 시장 선거와 경찰·범죄국장은 결선투표제[9] 방식을 활용하며, 스코틀랜드(Scotland) 및 웨일스(Wales) 자치의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한국식 선거제도)를 활용한다. 또한, 런던시장 선거는 선호투표제를 통해 선출하지만, 런던시의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활용한다.
잉글랜드 내 광역자치구 의회(Metropolitan Boroughs)는 36곳이 있는데, 이 중 33곳은 미국 상원과 유사하게 한번에 뽑는 것이 아니라 임기인 4년동안 3분의 1씩 3년동안 뽑고 1년은 선거를 하지 않는 방식이며, 3곳은 4년마다 총선거 방식으로 선출한다.
단일자치주 의회(Unitary Authorities)는 58곳으로 이 중 36곳은 총선거 방식, 나머지 17곳은 미국 상원 방식으로 선출한다.

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1997년 집권한 노동당(The Labour Party)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정부가 본격적으로 스코틀랜드법(Scotland Act, 1998), 웨일스정부법(Government of Wales Act, 1998) 제정으로 자치권 이양을 추진했다. 헌법, 법률로 자치권이 보장되는 연방제(Federal system)와 달리 영국 의회는 자치권을 이양한 법률 자체를 폐지 도는 수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역정부

9)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과반수가 없는 경우 1위와 2위만 결선으로 재투표하여 다수득표 원칙

별로 권한에 차이를 두는 비대칭적 이양[10]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영국은 기본 지방자치단체(Principal Authorities)와 준 지방자치단체(Sub-Principal Authorities)로 나뉘며, 기본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런던광역시 및 County)와 기초 자치단체(런던광역시 내 Borough, County 내 District), 단일통합형 자치단체(Unitary Authority)[11]으로 나뉜다.

준 지방자치단체는 소도읍(town)이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있으며, 잉글랜드 지역은 주민 직선의 패리시 의회(Parish Council) 또는 타운 의회(Town Council), 웨일스·스코틀랜드 지역은 커뮤니티 의회(Communities Council)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지 역	구 분		단일계층			2계층
			광역도시권	비도시권	런던	비도시권
잉글랜드	지 방 자치단체 (Council)	317	Metropolitan Districts (36)	Unitary Council(62)	London Boroughs(33)	County(21)
						District(164)
	특별지방자치 단체	11	Combined Authority (10)		London (GLA) • 런던시의회 (25석)	
스코틀랜드		32	Unitary authorities (통합자치단체)			
웨일즈		22	Unitary authorities (통합자치단체)			
북아일랜드		11	Unitary authorities (통합자치단체)			

12)

10) 잉글랜드(영국 의회 직접 관리),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입법권 이양), 웨일스(집행권 이양)
11) 잉글랜드(Metropolitan District-권역 내 기초자치단체가 광역기능을 흡수하여 통합적으로 수행)
이외지역(통합시Unitary-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해 기존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
12) 지방자치단체(Principal Authorities) 설치 현황(2023년 상반기) - 출처 : 외교부 영국 개황(`23.11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다수당의 대표가 집행위원장(Leader of the Council)을 맡고 있으며, 2~9명 정도의 의원으로 집행부를 구성하여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의원들은 정책평가 및 조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이 기본원칙으로 기본수당은 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하다.

집행구 구성은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구성 형태로 과거 대부분의 지방정부 운영 형태였단 의회-집행부-통합형의 위원장에서 새롭게 3가지 기본모델과 예외적 대안을 제시했다.

□ 지방정부법에서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선택 대안

○ 시장(Mayor) + 집행내각(Cabinet, executive)

- 직선 시장을 선출하고, 직선 시장이 2~9명의 집행내각 지명

○ 집행위원장(Leader) + 집행내각(Cabinet, executive)

- 의회 전체회의에서 집행위원장 및 다수당 대표를 선출하고 , 수석집행관 또는 의회 전체회의에서 2~9명의 집행내각 지명

○ 시장(Mayor) + 수석행정관(Mayor ans Council Manager)

- 직선 시장이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일상적 관리는 의회가 임명한 수석 행정관이 수행

□ 문화

영국 문학, 음악, 영화, 미술, 연극, 매체, 텔레비전, 철학, 건축은 전 세계에 영향력이 있고 존경을 받는다. 또, 영국은 과학기술에도 두드러진다. 스포츠는 영국 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되어 있는데, 특히 축구와 같은 수많은 스포츠가 이 나라에서 기원하였다. 영국은 문화 초강대국(cultural superpower)으로 기술되며 런던은 로마와 더불어 세계적인 문화적 수도로 기술된다.

영국의 기원과 더불어 산업 혁명은 사회경제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 대영 제국의 결과로 영국의 상당한 영향력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인도, 아일랜드 공화국,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미국을 포함한 나라들의 언어, 문화, 법률에서 관찰된다. 이러한 나라들은 통틀어 영어권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영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속한다. 영국 제국은 영국 문화, 특히 영국 요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1] 영국의 건축물

영국의 건축(영어: Architecture of the United Kingdom 혹은 영어: British Architecture)은 로마 건축부터 21세기 현대 건축까지 다양한 건축 양식을 포괄한다. 영국을 이루는 연합왕국 가운데 잉글랜드 지역이 가장 영향력있는 발전을 이뤄냈으며 이와 함께 북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가 독창적인 양식을 발전시켜왔다. 브리튼 제도 전역에 선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전적인 구조물이 다수 존재하나, 영국 건축 문화의 본격적인 발흥은 597년 캔

터베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브리튼 왕국에 입성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앵글로색슨인이 지은 크리스천 교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11세기 무렵, 노르만 양식의 건축물이 브리튼과 아일랜드에 왕성하게 지어지기 시작했다. 이때 축조된 대다수 건물은 노르만족의 침략을 돕는 성과 교회였다. 1180년부터 1520년까지 꽃피웠던 영국식 고딕 건축은 원래 프랑스에서 유래했지만 영국에서 독창적으로 변형 및 계승되었다.

2) 영국의 학교복합화 배경

학교복합시설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음

첫째, 교육서비스는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Community)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에서부터 시작되었음. 중학교는 낮에 교육을 하고, 커뮤니티 교육은 중학교 시설을 이용해 야간에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었음.[13]

두 번째 흐름은 체육시설을 충실히 하여 주민에게도 개방하기 시작하였음. 국조 보조금으로 학교체육관을 종래의 시설에 증축하여 비교적 소규모의 스포츠홀을 부설하거나 포장한 소규모 운동장을 부설하거나 실내 수영장을 설치하여 주민에 개방하였음. 1970년경에는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이 하나로 통일되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음.[14]

---

13) 이경남,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지방자치·도시행정전공), 2007. 6., 36쪽.

14) 최병관, "학교시설복합화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3권 제3호(통권 제56호), 2006. 7. , 99쪽.

□ 교육제도

1) 영국의 교육 제도

교육제도의 기본은 1944년 법으로 제정된 후 수차의 수정을 했지만 대강(大綱)은 보존되어 있다. 중앙교육행정은 교육·과학성(教育·科學省 ; 1964년 4월 이전의 교육성을 개조)이 담당하지만 초·중등 교육행정은 지방분권제가 발달한 나라에 알맞게 실질적으로 전국 162개 지방 교육당국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의무교육은 5세부터 16세까지 11년간(1971년 이전에는 15세까지)이다. 공립학교 체계는 대체로 11세를 기준으로 개혁의 방향을 세우고 있다. 그 이전은 초등 이후를 중등으로 구분하며 중등교육 수료 후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계속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초등교육은 보육학교(2-5세)·유아학교(5-7세) 및 초등학교(7-11세)에서 실시하며, 중등교육은 그래머스쿨·기술학교·현대학교·종합학교와 사립학교인 퍼블릭스쿨에서 하고 있다. 중등교육은 11세에서 18세까지로 되어 있으며, 수업 연한은 일정치 않다. 예컨대 현대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은 18세까지 수학한 뒤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그래머스쿨과 퍼블릭 스쿨의 성격은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에의 진학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기술학교는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중견사업인의 양성을 목표로 이과 및 기술교육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학교는 그래머스쿨·기술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절대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1세에 시험을 쳐서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기회균등정신에 비추어 타당치 못하다는 이유로 런던을 중심으로 한 기타 지역에서는 시험을 거쳐 그래머스쿨·기술학교·현대학교로 분화하여 입학시키는 대신, 전체 중등학

교 졸업자를 같은 학교에 수용하여,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행한다는 의도에서 종합학교를 설립하였다. 현재 많은 지방에서 이 학교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의무교육 연한도 16세까지로 연장한다는 안(案)과 함께, 영국 중등교육 개혁의 방향을 세우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으로 1960년에 24개에 불과했던 대학이 1975년에는 65개로 증가되었고, 학생수도 약 40만 명에 도달하고 있다. 종류로는 종합대학교·교원양성 대학 및 공과대학 등이 있다. 종합대학교는 일반교육·전문교육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다른 고등교육 기관과는 달리 학위 수여의 권한을 갖고 있다. 학사과정의 연한은 전공학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3년 내지 4년으로 되어 있다. 공과대학은 상급 기술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 기관으로, 전일제(全日制)와 샌드위치 코스(3개월 내지 6개월씩 교대로 하여 학습과 공장실습을 병행하는 과정)가 있는데, 수업 연한은 전일제의 경우 대개 3년 내지 4년으로 되어 있다.

2) 취학 전 교육(Pre-school Education, Nursery Education, 2년 과정 3세-5세)

5세 미만의 어린이 교육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국의 학부모들은 공립으로 운영되는 유치원(State Nursery Schools), 초등학교에 부속된 취학 전 준비반(Nursery Classes Attached to Primary Schools), 교회 등과 같은 비영리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놀이 학교(Playgroups in the Voluntary Sector),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Privately Run Nurseries) 등에 2년 동안 자녀를 보낸다. 이것은 한국의 유치원과 같은 단계의 교육이다.

3) 초등교육 (Primary Education, 5~7년 과정, 5세~11세)

영국에서 의무교육은 5세부터 시작된다. 5세부터 11세까지의 초등교육은 5세에서 7세의 아동들이 다니는 유아학교(Infant Schools)와 8세에서 11세까지의 아동들이 다니는 주니어 스쿨(Junior Schools)에서 이루어진다. 어떤 지방교육청에서는 중등학교가 주니어 스쿨을 대신하여 9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한다. 초등학교들은 대부분 남녀 공학이며, '국가교육과정'을 따른다. 사립 초등학교는 일반적으로 사립예비학교로 불리며, 학생들은 이곳에서 '사립 중등학교 입학시험(Common Entrance Examination)'을 준비한다.

4) 중등교육 (Secondary Education, 5년 과정, 11세~18세)

영국의 중등교육은 5년 과정으로 11세부터 18세까지 행해지며, 모든 아이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중등교육은 초등교육보다 상위 수준의 교육으로 85% 정도의 아이들이 11세부터 종합중등학교(Comprehensive Schools)에 다닌다. 종합중등학교는 특정의 선발시험 없이 모든 학생을 받아들이며, 학문적 성격의 교과목을 위시한 다양한 교육을 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되는 사립중등학교는 선발고사를 통해 입학하는 8% 정도의 학생들을 위해 학교 고유의 육영철학에 따라 운영된다. 기타의 학생들은 '신(新) 중등학교(Secondary Modern Schools)'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학교에 다닌다.

16세가 되면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한 'A-Level 시험'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Sixth-form 과정'으로 진급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

중심의 교육을 받고 취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17세는 12학년이지만 특별히 '6학년 하급반(Lower Sixth-form)'이라 지칭되며, 18세는 13학년이지만 '6학년 상급반(Upper Sixth-form)'으로 불린다. 16세 때 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한 학생들은 취업준비를 위해 '에프이 칼리지(FE, Further Education College)'라 불리는 '전문대학'에 들어가서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을 받는다.

학생들은 중등교육과정이 끝나가는 15세~16세경에 '중등교육수료자격시험(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GCSE)'을 치러야 한다. Sixth-form 과정에서 2년간 교육을 더 받은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18세경에 'A-Level(Advanced Level) 시험'을 치거나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같은 기타 시험을 친다.

'A-Level 시험'에는 A1과 A2 두 가지가 있는데, A1(Advanced Supplementary Level, AS-Level)은 A2(full A-Level)의 1/2 자격에 해당하며, 2개의 A1은 1개의 A2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된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A-Level 시험에서 2과목 이상을 통과하면 입학자격이 주어지지만, 옥스퍼드대학이나 케임브리지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선발고사를 치러야 한다.

5) 고등교육

18세 이후가 되면 영국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고등교육을 받는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생 본인이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중앙입학사무소(The University Central Admission Service, UCAS)'를 통해 지원하는데, UCAS

는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사정기관이 아니라 단지 학생과 대학 간의 중개자 역할만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대학 입학의 선결요건으로는 A-Level '일반교육자격시험(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GCE)'에서 각 대학이 지정한 두세 과목 이상의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별도의 입학시험이 없지만,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만은 단과대학별로 필기시험을 치른다.

영국에는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140여 개의 종합대학교와 단과대학들이 있다. 이들 중 유일한 사립대학인 버킹엄대학(University of Buckingham)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이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간섭은 전혀 없으며, 모든 대학이 자율적인 학사운영·관리 시스템과 학위(학사, 석사, 박사) 수여 권한을 갖고 있다.

대학에서 일정 기간 수학하면 받게 되는 것이 학위(Degree)인데, 영국에서는 국왕의 허가(Royal Charter)를 받은 대학만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위 과정은 단계별로 학사 학위과정 3년, 석사 학위과정 1년, 박사 학위과정 3년이며, 학기(Term)는 통상 3학기제로 운영된다. 매 학기는 10주씩으로, 첫 학기는 10월부터 12월, 두 번째 학기는 1월부터 3월, 세 번째 학기는 4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다.

대학 학부과정을 마치고 받는 학사 학위(Bachelor's Degree)에는 인문계 졸업생들이 받는 '문학사(B.A., Bachelor of Arts)'와 이공계 학생들이 받는 '이학사(B.Sc., Bachelor of Science)'가 있으며, 대학이 아닌 2차 교육기관에서 받는 증서로는 '자격증(Certificate)'과 '수료증(Diploma)'이 있다. 학사 학위를 받은 뒤에

대학원(Graduate School)에 진학해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받는 석사 학위에는 수업 석사(1년 과정)와 연구 석사(2년 과정)가 있으며, 수업 석사 학위는 인문계의 경우 'M.A.(Master of Arts)'로, 이공계는 'M.Sc.(Master of Science)'로, 연구 석사는 'Mphil(M.Phil, MPhil, Ph.M., Master of Philosophy)'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석사 학위를 받고 다시 소정의 과정을 거친 뒤 학위논문을 제출하면 최고 학위라 할 수 있는 박사 학위(Doctorate)를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Ph.D.(Doctor of Philosophy, 철학 박사)'로 지칭된다. 오늘날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에도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박사 후 과정(Post-doctorate Course)'을 거치기도 한다.

□ 한국과의 관계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나라 중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영국과 직접적인 갈등이 없었던 몇 안되는 나라 중 한 나라다. 전세계의 모든 나라를 들쑤시고 다닌 대영제국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한국은 지리적, 국제정세적 요인으로 인해 영국과의 마찰을 피해온 매우 희귀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가장 핵심적인 동맹국가인 미국마저도 18~19세기 서구열강 제국주의 시절 신미양요나 전통적인 친일 성향에 의한 가쓰라-태프트 밀약, 20세기 박정희 유신독재정권 시절과 더불어 미묘한 마찰이나 불편한 이슈들은 끊임없이 있었는데, 영국의 경우는 한국의 근세 태동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마찰이라고 할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

그나마 영국과 관련된 일로는 거문도 점령 사건 정도가 있지만, 이마저도 조선보다는 조선에 대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행위였기에 애매한 감이 있다. 거기에, 거문도에 상륙한 영국군은 거문도 주민들과 매우 우호적으로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주민들을 용역으로 고용하거나, 거주지 제공에 대한 보답으로 주민들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는 등, 으레 폭력이 뒤따르기 마련인 강제 점령에서마저도 마찰이나 갈등이라고 볼 만한 사건은 전혀 없었다.

비록 영국이 조선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에 과거부터 한국과 마찰이 없었던 것이라는 건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보아도 역사적·외교적·정치적으로 양국 사이에 마찰 혹은 갈등이 생긴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비단 영국 뿐만 아니라 다른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과도 소규모 이상의 마찰이 없었고, 제국주의적 침탈은 대부분 일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특수성 때문에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판이하게 다르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 구미 국가들은 식민지배자, 제국주의자, 전쟁 교전국의 포지션인데 비해,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구미 제국주의 열강들의 군대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파병되고 희생됨으로써 오히려 해방자, 은인의 이미지로 시작하게 되었다. 즉,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악명을 떨친 북미유럽

은 지리적 특성상 엮일 일이 없던 현대 한국에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매우 좋은 편인데, 특히 소규모의 마찰조차 없었던 영국은 그중에서도 돋보이는 편이다. 한국은 지리적 특성 탓에 서구권의 지배나 압력을 받지 않았고, 서구권의 종교인 기독교도 빠르게 받아들여 개신교나 가톨릭이 매우 강세인 국가가 되었다. 때문에 한국과 악연이 있는 나라는 같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 일본에 대부분 치중되어 있고, 한국에 패권을 휘두르려던 서구권 국가는 러시아 정도가 있으나 러시아도 본래 패권을 휘두르는 지역이 유럽이니만큼 이것도 현대 한국인들에게는 체감이 오지 않는 패권이다. 영국도 타 유럽 서방국가처럼 한국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지만, 현재 영국은 EU에서도 나간데다가, 유럽 국가들과는 별개로 행동하며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하여 미국의 국익과 발을 맞추어 행동하기에, 현대 한국과 영국의 정부 차원에서의 친밀감은 한미동맹과 호환이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지는 탓에 독일/프랑스/이탈리아 같은 유럽국가보다 한국과 더욱 가까운 편이다.

Ⅲ 방문기관

1 Oasis Community Learning(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

□ 방문목적

○ 학교시설 복합화의 시설 유형 중 '학교시설+커뮤티니 룸'에 해당되는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 사우스뱅크를 방문, 시찰, 프로그램 운영 현황, 간담회 등을 진행함으로써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해당 기관의 장·단점, 운영 실태 등을 검토·분석하여 교육위원회로서의 학교시설 복합화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

○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약칭 : 오아시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문 목적은 해당 기관의 세부적인 운영 실태 파악을 통하여, 오아시스의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시찰하고 견학하기 위함.

○ 오아시스의 하드웨어(hardware)로서 구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와 부대시설(도심 농장, 놀이공간) 등을 살펴 봄으로써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하드웨어로서의 타당성과 편의성 등을 고찰하기 위함.

○ 오아이스의 소프트웨어(software) 전반을 살펴 봄으로써 오아시스의 지역중심교육, 학습 운영 형태, 정보 교환, 네트워킹(networking), 자기 계발, 사회적 활동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오아시스의 가치와 정신(ⓐ포함하려는 열정, ⓑ다름을 존중하면서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싶은 욕구, ⓒ건강하고 열린 관계에 대한 헌신, ⓓ모든 것이 변하고 변할 수 있다는 깊은 희망,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인내심)과, 오아시스의 9가지 습관(①동정심, ②인내, ③겸손, ④기쁨, ⑤정직, ⑥희망, ⑦배려, ⑧용기, ⑨자제) 등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체득하기 위함.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24. 4. 23.(화) 13:30 ~ 15:30

○ 주　　소 : 75 Westminster Bridge Road, London SE1 7HS

○ 홈페이지 : https://www.oasiscommunitylearning.org./

○ 면 담 자 : Danilelle Welch / Chief Operating Officer

○ 기관정보

- Oasis Trust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은 커뮤니티를 위한 것.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기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에 도달하는 곳. 일류의 혁신적인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각 영역에 '허브'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개인 전체와 지역사회 전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통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하고 영감을 주는 지역 동네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 중임.

- 《지역사회 중심의 뛰어난 교육》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은 성격, 역량, 공동체라는 렌즈를 통해 교육의 복잡한 책임을 이해한다는 원칙. 이러한 원칙은 Oasis 9가지 습관 및 정신과 함께 의도적으로 개발되어 모든 아카데미 전체에 매일 적용하고 있음.

■포용, 사회통합 및 불이익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점을 주고자 하고 있음. 인격과 관계의 육성을 통해 학생과 교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배우고 발전하겠다는 공통된 결심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asis 직원들은 함께 다음을 열망하고 있음.

■ 안전하고 자극적인 학습 환경 조성

■ 전국 평균 이상으로 발전과 성취도를 높인다.

■ 모든 학생에게 훌륭하고 빠른 발전을 보장하는 고품질 교육을 제공한다.

-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의 정신》

■Oasis 커뮤니티 학습 내의 모든 것은 우리의 정신에 따라 구성된다.

■우리의 정신은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누구인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렌즈를 제공하는 일련의 가치이다.

■ 포함하려는 열정

■ 다름을 존중하면서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싶은 욕구

■ 건강하고 열린 관계에 대한 헌신

■ 모든 것이 변하고 변할 수 있다는 깊은 희망

■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인내심

■우리가 알려지고 살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 가치이다. 우리는 모든 Oasis 허브와 아카데미 커뮤니티의 삶과 문화의 모든 측면에 걸쳐 포용, 평등, 건강한 관계, 희망, 인내의 모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교직원이든 학생이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이러한 정신 가치에 부합하도록 권장한다. 가치 자체는 그리스도 중심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신 가치를 뒷받침하는 신념을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영적, 문화적 다양성이 우리 지역 사회에 가져오는 풍요로움을 인식하고 축하하며,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다른 신앙의 신념과 관습을 존중한다.

– 《오아시스 9가지 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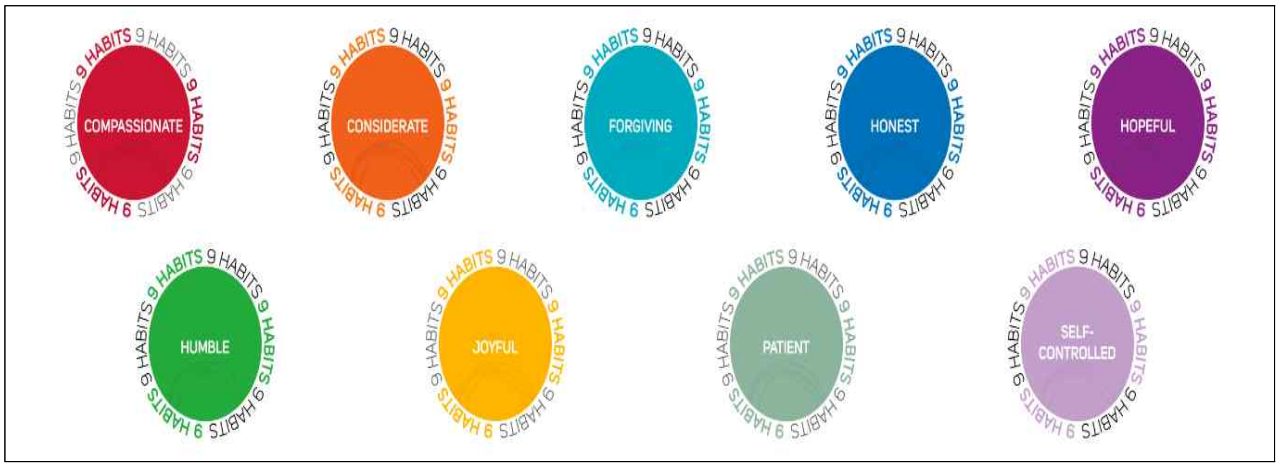
■오아시스 정신은 열망적이고 영감을 주며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조직은 사람들로 구성되며 사람들이 항상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의 정신 가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고 경험하는 것 사이에 때때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인식하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모습이

되기 위해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개인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는 오아시스 9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는 캐릭터 개발에 대한 우리의 맞춤형이자 독특한 접근 방식이다. 우리는 습관의 방식으로 생활함으로써 오아시스 정신이 우리에게 제2의 천성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의 성격을 개발하고 최고의 모습으로 변모하는 이러한 과정이 모든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① **동정심**, ② **인내**, ③ **겸손**, ④ **기쁨**, ⑤ **정직**, ⑥ **희망**, ⑦ **배려**, ⑧ **용서**, ⑨ **자제**를 특징으로 하는 삶의 방식으로 초대하는 오아시스 9가지 습관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실천한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 자신이 최고의 모습이 됨으로써 교직원이든 학생이든 변화할 수 있으며,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다.

□ 연수내용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오아이스 커뮤니티 러닝과의 면담

○ 한국의 경우, 학교복합시설 건립으로 교육·돌봄 인프라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하는 것을 학교시설 복합화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구 소멸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입장임.

○ 따라서 한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주안점은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늘봄학교 시설 및 수영장을 포함한 평생교육시설 건립에 초점(focus)이 1차적이고 직접적인 유도효과에 맞춰져 있음.

○ 그리고 지방소멸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건립으로 지역 정주 여건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등을 향상시켜 머물고 살고 싶은 지역맞춤형 학교시설 복합화를 유도하는 것을 2차적이고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 이러한 한국의 학교시설 복합화와 달리, 영국은 1930년대부터 학교시설 복합화가 태동되어 2024년 현재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 복합화의 출발점과 주안점이 상이함을 사전에 인지하였음.

○ 한국과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의 상이(相異)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영국의 학교복합시설 중의 하나인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을 방문하고 시찰함으로써 SWOT기법 등을 활용하여 오아시

스 커뮤니티 러닝의 장점은 적극 수용하고, 그 단점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의 기관 현황, 운영 실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역 등을 파악하는 면담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음.

□ 질의답변

○ 오아이스 커뮤니티 러닝은 교육기관입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입니까?

⇒ 지역개발을 위한 자선단체(charity)이며, 비영리단체입니다. 기금 및 기부금은 중앙정부의 지원, 법인과 개인의 기부(donation), 종교단체의 기부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아이스 커뮤니티 러닝의 운영방식은 기금을 통하여 운영하고, 학교도 경영하고 있고, 소유한 건물의 대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집중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워크(community work)를 분야별로 20개 자선활동으로 구분하여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의 교육과 수업은 정규수업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의 교육과 수업은 정규수업으로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의 학교 형태는 공립과 사립 등 여러 형태의 학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학교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펀딩(funding)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의 일련의 사업들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어 실시되었습니까?

⇒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의 일련의 사업들이 모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어 실시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일정한 사업의 경우 때때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의 경영 일부가 종교단체의 기부를 받아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커뮤니티와 종교단체의 관련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국의 의무교육의 연령이 16세에서 18세로 상향되었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종교단체와 함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단체의 건물이나 부지 등을 학교로 변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종교행사를 하고, 종교행사가 없는 일요일 이외의 요일에는 학교로 활용하는 세어링(sharing)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종교시설이 제2의 학교(secondary school)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종교단체가 공동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학교와 종교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센터는 도서관으로도 활용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약자 등을 위하여 커뮤니티센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 모범적인 사례가 또 있습니까?

⇒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활동하고 고유하는 커뮤니티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의 요구(needs)를 수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커뮤니티센터 인근에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앞 길에 지방정부와 협조 하에 노점상 등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받고 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면 커뮤니티센터 인근에 토마스병원 소유의 토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토마스병원 소유의 토지는 해당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병원에서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에 무상으로 대여해 준 장소입니다. 저희는 이 곳을 정신적 치유를 위한 오아시스 농장(Oasis Farm)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병원과 오아시스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오아시스 농장에 작물 등을 경작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녹색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아시스 농장에는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에서는 결혼식, 회의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로 인한 임대수입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시 사 점

○ 한국의 경우,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초등학교에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되고 있고, 초등학교에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 미래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사업이 학생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오아시스 9가지 습관(① 동정심, ② 인내, ③ 겸손, ④ 기쁨, ⑤ 정직, ⑥ 희망, ⑦ 배려, ⑧ 용서, ⑨ 자제)을 특징으로 하는 삶의 방식으로 초대하는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은 특히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전인교육의 표상으로서의 가치를 함양하고 배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의 학교복합시설의 가치관 설정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만큼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판단됨.
- 영국의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의 견학 및 시찰 결과,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다양화와 다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체감할 수 있었음.
- 한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초등학교를 위시로 하여 진행하는 것을 물론, 그 사업의 대상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특수학교, 종교단체, 병원, 지방자치단체 유휴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복안과 대안을 모색하여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다양화와 다변화를 계획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교육은 학교에만 맡길 수 없는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로 지역 내 모든 구성요소의 상호작용과 협력이 필요하다.[15] 어쩌면 학교시설 복합화는 온 마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15) 이주연, “도시재생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박사학위논문, 세명대학교 대학원(지역개발·부동산학과), 2020. 8., 29쪽.

를 포함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은 백년대계’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사업이 되어야 함을 시사받았음.

○ 따라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 학교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도시재생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각 부처 사이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시사받았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는 적극 제안함.

○ 공공시설 노후화, 저출산, 고령화, 공공재정 감소 등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재편과 학교시설 복합화를 연계해야 하는데 지역주민 등 관계자들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학교를 지역사회 공공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커졌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서의 안전문제와 복잡한 복합화 시설의 관리·운영 책임소재 등 갈등요소가 존재했던 것이다.

○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각 부처 사이의 협력체계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시설 복합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도시계획자들이 학교를 공공인프라로 인식하고, 학부모·공무원·교육자·지역주민 등 다양한 거버넌스의 참여와 시민역량을 키우고, 도시와 학교를 연결하는 장기적 공동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방문사진


Welcome to...
Oasis
Academy:
Johanna
Principal: Dawn Venn
0207 928 5814 | www.oasisacademyjohanna.org
Main entrance in Johanna Street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안전위원회 & 교육위원회 합동국외정책연수









2 Rose Hill Community Centre(로즈힐 커뮤니티 센터)

□ 방문목적

○ 학교시설 복합화의 시설 유형 중 '학교시설+스포츠(레저)센터'에 해당되는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 시찰, 프로그램 운영 현황, 간담회 등을 진행함으로써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해당 기관의 장·단점, 운영 실태 등을 검토·분석하여 교육위원회로서의 학교시설 복합화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

○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방문 목적은 해당 기관의 세부적인 운영 실태 파악을 통하여,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의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시찰하고 견학하기 위함.

○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의 하드웨어(hardware)로서 구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와 부대시설 등을 살펴 봄으로써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하드웨어로서의 타당성과 편의성 등을 고찰하기 위함.

○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는 영국의 현대적인 커뮤니티 센터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의 전형적인 모델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소프트웨어(software) 전반을 살펴 봄으로써 해당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시찰하고 고찰하여 전북의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계획, 준비, 실시, 평가 등의 전반적인 과정에 로드맵과 대안을 제안하기 위함.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24. 4. 24.(수) 10:30 ~ 11:30

○ 주　　소 : Carole's Way, Rose Hill, Oxford, OX4 4HF

○ 홈페이지 : https://www.rosehillcommunitycentre.co.uk/

○ 면 담 자 : Shabnam Sabir / Community Faciliries and Manager

○ 기관정보 : 옥스퍼드시의회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장소

- 《소개》

■현대적인 커뮤니티 센터로서 완전한 접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최첨단 체육관, 회의 및 회의 시설, 소셜 클럽, 자문 센터, 유스 스위트룸, 건강 허브 및 변경 시설을 한데 모아 놓은 시설임.

■회의, 수업, 시험, 리허설 및 파티에 적합한 완비, 에어컨, 유연한 객실 및 공간을 갖추고 있음.

■건물은 지상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음. 2개의 장애인 화장실과 1층에 샤워 시설이 있고 장애인 화장실도 있는 1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음. 또한, 2개의 아기 탈의시설이 있고 건물 전체에서 모유 수유도 가능함.

■외부, 리셉션 공간 및 멋진 체육관을 포함하여 비디오를 통해 360도로 커뮤니티 센터를 확인 가능함. 또한, '방을 고용하세요' 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방의 사진과 비디오를 볼 수 있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센터의 오픈 시간을 보고 센터로 가는 여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홈페이지를 항시 운영 중임.

- 《수상 내역》

  ▪2016년 Oxford Preservation Trust Awards에서 'New-Build' 상 수상

  ▪2017년 Civic Trust Awards 지역 결선 진출

  ▪2017년 사우스 이스트 RICS 어워드의 지역사회 혜택 부문 최종 후보 선정

- 《재활용 정책 적극 추진》

  ▪탄소 제로 옥스퍼드를 추구

  ▪옥스퍼드 기후 변화 시민 회의의 분명한 메시지는 시민들이 옥스퍼드 시가 계속해서 배출량을 줄이고 생물 다양성을 늘리는 데 앞장서기를 원한다는 것임.

  ▪Rose Hill 커뮤니티 센터는 센터를 사용하는 주민, 기업 및 기타 조직에 영향을 주어 재활용을 늘리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임대인/사용자에게 예약을 정리할 때 재활용품과 음식을 일반 쓰레기와 분리하여 센터를 지원할 것을 요청.

□ 연수내용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와의 면담

○ 한국의 경우, 학교복합시설 건립으로 교육·돌봄 인프라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하는 것을 학교시설 복합화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구 소멸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입장임.

○ 따라서 한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주안점은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늘봄학교 시설 및 수영장을 포함한 평생교육시설 건립에 초점(focus)이 1차적이고 직접적인 유도효과에 맞춰져 있음.

○ 그리고 지방소멸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건립으로 지역 정주 여건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등을 향상시켜 머물고 살고 싶은 지역맞춤형 학교시설 복합화를 유도하는 것을 2차적이고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 이러한 한국의 학교시설 복합화와 달리, 영국은 1930년대부터 학교시설 복합화가 태동되어 2024년 현재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 복합화의 출발점과 주안점이 상이함을 사전에 인지하였음.

○ 한국과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의 상이(相異)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영국의 학교복합시설 중의 하나이지만, 비교적 최근에 설립되어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의 총체(總體)라고 할 수 있는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고 시찰함으로써 SWOT기법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장점은 적극 수용하고, 그 단점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의 기관 현황, 운영 실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역 등을 파악하는 면담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음.

□ 질의답변

○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는 2024년 4월 현재 개원 9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센터로서 옥스퍼드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 웰빙, 스포츠, 영어, 쿠킹 프로그램, 파티 등의 프로그램 및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다양한 인종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는 주된 예산은 옥스퍼드시의회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 주민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매우 작은 비용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는 무료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렴한 요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약자에게는 아트반, 빙고반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 관련 어드바이스 프로그램 운영, 건강 확인 프로그램 운영, 생일 파티, 결혼식, 세례식, 기도실 등 행사와 기념식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교적·문화적 다양성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으로는 커뮤니티 센터 이용자를 차후에 자원봉사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센터 이용 경험자로서의 소회와 체험 등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및 미혼자 등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의 이용자 수는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리고, 학교복합시설로서 이용가능한 지역적인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스포츠센터와 연계하고 있습니까?

⇒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는 운영하는 시간대에는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그래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센터 이용자는 센터 반경 8㎞, 2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는 작은 규모의 체육관이 있고, 축구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없는 체육시설은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센터의 규모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을 위한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주변에 있는 인구수가 12만명으로 그 중 20% 정도가 외국인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영국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센터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옥스퍼드시의회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의원과 사무종사자의 겸직이 허용됩니까?

⇒ 지방정부와 옥스퍼드시의회(로즈힐 커뮤니티 센터)가 상부상조하는 형태입니다. 지방정부는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건물유지보수비 등을 원조하고 있으며, 커

뮤니티 센터 인근 지역주민도 기부, 찬조 등으로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옥스퍼드시의회 소속된 총책임자이며, 시의원은 아니지만, 영국의 경우 의원과 사무종사자의 겸직이 허용가능합니다.

○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는 신축 건물인지 리모델링 건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센터 주이용 계층은 어떻게 되는지, 센터 근처에 학교가 있는지, 초등학생 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는 9년전 500~600만 파운드 비용으로 신축된 건물입니다. 주이용계층은 센터 부근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센터에서 3.2㎞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수는 700여명이며, 학생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소는 줄어드는 것이 영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 학교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 영국에서 현재 학생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정치적 이슈가 원인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영국 중앙정부가 교육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고,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줄이고 있습니다. 영국 지역마다 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와 학교 사이의 연계를 위한 대책 회의

등이 있습니까?

⇒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와 학교 사이의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빈곤층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미술·스포츠·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 사 점

○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는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의 총체로서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모델이었기에 해당 센터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짧았지만 강하고 좋은 인상을 받았음.

○ 특히,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는 옥스퍼드시의회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점은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나 유형 중에서 볼 수 없는 운영방식이었기에 시사하는 바가 컸음.

○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서 학교시설 복합화를 교육부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주도적으로 해야 함을 제안하면서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도적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시사점을 받았고, 학생과 지역주민들, 특히 노약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고 동행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진행하고자 함.

□ 방문사진


Oxford City Council Investing in Your Community
Welcome to
Rose Hill
Community Centre


Oxford City Council Investing in Your Community
Welcome to
Rose Hill
Looking for...
Little
Pioneers
nursery & pre-school










Community Library


Rose Hill Social Club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교육위원회 합동국외정책연수

3 애쉬몰리언 박물관(Ashmolean Museum)

□ 방문목적

○ 근대 최초 대학박물관으로 기증자인 엘리어스 애쉬몰(Elias Ashmole, 1617-1692)의 뜻에 따라 17세기 개관 당시 일반대중들에게도 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한 정책을 펼쳤으며, 박물관의 '보존'과 '전시' 기능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교육' 공간과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소통'공간 및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조사하고자 함

○ 공립박물관이자 지역박물관으로써 문화재·예술작품 전시 및 문화프로그램, 관람객 홍보·유치 방안, 입장료 정책 등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연구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함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24. 4. 25.(목) 10:30 ~ 12:00

○ 주　　소 : Ashmolean Museum Beaumont Street, Oxford OX1 2PH

○ 홈페이지 : https://www.ashmolean.org/

○ 면 담 자 : Anna Steven / Museum Curator



○ 기관정보

- 1682년 부유한 영국의 골동품 수집가이자 정치가, 점성술사였던 엘리어스 애쉬몰(Elias Ashmole)이 기증한 수집품을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에 기증함
- 기증한 대부분의 컬렉션들은 부유한 솔즈베리 백작(Earl of

Salisbury)에게 고용된 정원사 존 트레즈칸트(John Tradescant)가 백작의 정원을 위해 세계여행을 하며 수집한 식물종자와 지잘학, 동물학적인 놀라운 물건들을 트레즈칸트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많았으며, 기증품을 중심으로 1683년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박물관이자 세계 최초의 대학 박물관으로 개관함

- 박물관 명칭은 기증자인 엘리어스 애쉬몰(Elias Ashmole)의 이름을 따서 애쉬몰리언 박물관(Ashmolean Museum)으로 명명했으며, 개관 당시 박물관은 지금의 과학사 박물관(Historiy of Science Museum) 건물 위치에서 문을 열었으며, 엘리어스 애쉬몰의 뜻에 따라 일반 대중들도 처음부터 입장할 수 있었음(17세기 당시 논란이 있었던 정책임)
- 1845년 건축가 코커렐(Charles Robert Cockerell)에 의해 그리스부흥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대학 갤러리 뒤에 신(新)박물관이 세워졌으며, 1894년 확장된 대학 갤러리로 수집품을 이전했음. 1908년 유명한 고고학자 에반스 경(Sir Arthur Evans)에 의해 다수의 예술 및 고고학 유물들이 추가로 수집되었음
- 1999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며, 현대 박물관의 표준에 부합하도록 애쉬몰리언 박물관(Ashmolean Museum)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했음. 1단계는 1999~2009년까지 북쪽에 국한된 갤러리 뒤에 있는 노후화된 빅토리아 시대 건물들을 철거하고 확장하고, 기존 갤러리의 일부를 개조하는 단계로 가장 광범위한 개발이며, 2009년 준공 후 재개장이 되었음



그림 애쉬몰리언 박물관 마스터플랜에 따른 재개발 전·후 사진과 입체도면(출처:MICA Arcchitects)

- 2단계는 2014년까지 갤러리와 확장된 공간 1층(영국 ground floor)에 위치한 이집트 갤러리 및 란돌프 갤러리, 환영공간 등의 공간을 개선하여 잠재력을 열었으며, 3단계는 2017년에 수집품 전시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요 갤러리와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 갤러리 공간을 제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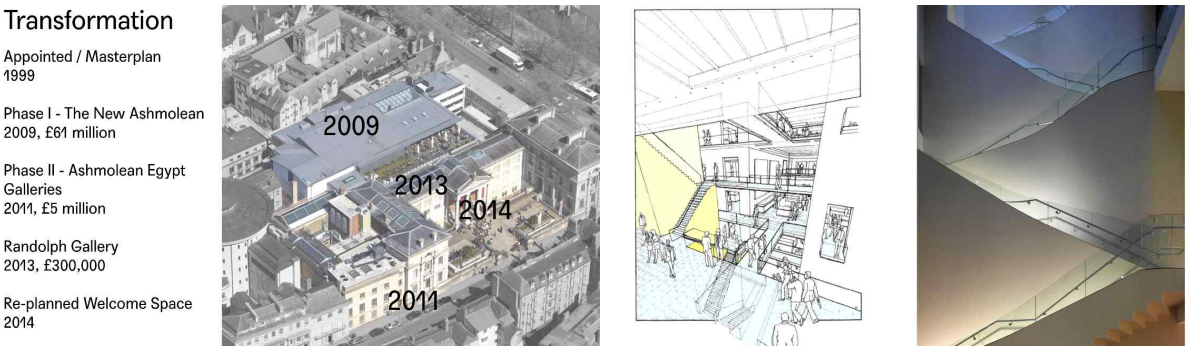


그림 애쉬몰리언 박물관 마스터플랜 및 스케치·준공사진 (출처:MICA Arcchitects)

- 옥스퍼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에는 애쉬몰리언 박물관(Ashmolean Museum), 과학사 박물관(History of Science Museum), 자연사 박물관(Museum of Natural History), 피트리버스 박물관(Pitt Rivers Museum), 보들리언 도서관(Bodleian Library), 옥스퍼드 보타닉 가든&수목원(Oxford Botanic garden&Aboretum) 등 다양한 부속 박물관과 도서관, 가든이 있으며,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문화와 교육, 소통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 연수내용

박물관 운영 및 프로그램 관련 관계자와의 면담

○ 우리나라의 박물관 대부분은 재정·운영·관리에서 사실상 척박한 실정임.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국·공립 박물관의 경우 학예사를 공무원으로 뽑고 있어 인원에 제한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은 한두명의 학예사로만 운영되는 경우도 많음. 사립 박물관의 경우는 소수의 박물관을 제외하면 재정상태가 열악해 고용자체가 힘든 상황임

○ 또한,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도 미흡하며, 정부의 지원과 제도도 미비함. 가장 중요하게도 아직까지는 박물관이 '보존'과 '전시'의 기능만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 같으며, 그로 인해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의 관심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반면, 영국의 박물관들은 '보관', '전시' 기능 뿐만 아니라 '교육'과 지역사회와의 '소통공간'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지역에 소재한 공립박물관의 박물관 내부 전시관을 운영 관리 방안 및 관람객 홍보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함

○ 박물관의 교육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공간 등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 및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함

□ 질의답변

○ 애쉬몰리언 박물관의 운영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매일(월~일) 오전10시에서 오후5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디렉터, 디자이너, 큐레이터, 사무직원 등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입장료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무료이며, 기부(Donate) 및 후원을 받거나 특별전시회 및 유료 멤버쉽·프로그램, 기프트샵, 레스토랑 등의 수입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방문객 수가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람객수는 어떠한가요? 관람객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있는지요?

⇒ 코비드(Covid-19)가 발생한 이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우리 박물관은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임시 폐쇄를 하였습니다. 8월에 재개관을 했으나, 전세계적으로 해외방문객 등의 수가 위축되었습니다. 2019년까지는 약90만명의 방문객들이 있었으나,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약20만명으로 떨어졌으며, 수입 등에도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다시 방문객 수가 증가하여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방문객 수[16]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임시폐쇄하였지만, 애쉬몰리언 박물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컬렉션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 및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홈페이지 방문객이 많이 늘었으며, 디지털로의 전환 작업에 발전이 있었습니다.

○ 애쉬몰린 박물관은 대중을 위한 공공박물관으로 유명한데, 2009년

16) 영국 전국명소협회(ALVA, Association of Leading Visitor Attractions) 홈페이지 확인 가능

박물관 확장 시 지역사회나 지역주민을 위해 마련한 별도의 공간이나 혜택이 있는지?(있다면 현장방문 가능한지?)혹은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이 박물관을 위해 참여하거나 기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 기증자인 엘리어스 애쉬몰은 수집품들을 일반 대중들이 볼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 박물관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박물관을 리뉴얼하면서 학습 공간(Learning Centre)과 강의실(Lecture Theatre), 루프탑(Rooftop)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후원을 통해 박물관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자원봉사 등을 통해 박물관 행사 및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39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사진 애쉬몰리언 박물관 러닝센터 및 학습체험공간

○ 박물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간 몇명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 우리는 연령별로 그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베이비 번들(Baby Bundle) 활동, 유아시간(Toddler Time), 가족산책로(Family Trail) 등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들을 무료 또는 저렴한 구독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에 필요한 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Primary, Secondary schools)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박물관과 예술계에 진로를 희망하거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16세~24세)을 위한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10시에서 오후2시 사이에 언제든지 학생들을 오도록 장려하여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시설을 확장하면서 여성들 모임 및 엘더링클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연간 7천명의 방문객들이 가족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약 2만개의 학교 강의가 제공되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가족투어와 베이비 번들 활동이며, 학교 프로그램도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물관은 대학 부속시설인데, 대학의 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는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자금지원이 있는지? 또한, 중앙/지방정부와 함께하거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있는지?

⇒ 대학 부속 박물관이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은 사실상 매우 적다. 자체적인 특별전시회 프로그램과 멤버쉽, 기부금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시 사 점

○ 박물관이라는 전시공간의 개념에서 교육 및 커뮤니티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갤러리의 일부를 종교행사 또는 음악공연, 나아가 결혼식 대관 등 공간 대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강의실 등(Lecture Theatre, Learning Centre)을 활용해 초·중학생들 학습공간, 우먼스 그룹, 엘더링 클럽 등 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진 애쉬몰리언 박물관 지역사회 종교·모임·학생 등 행사 (출처:MICA Arc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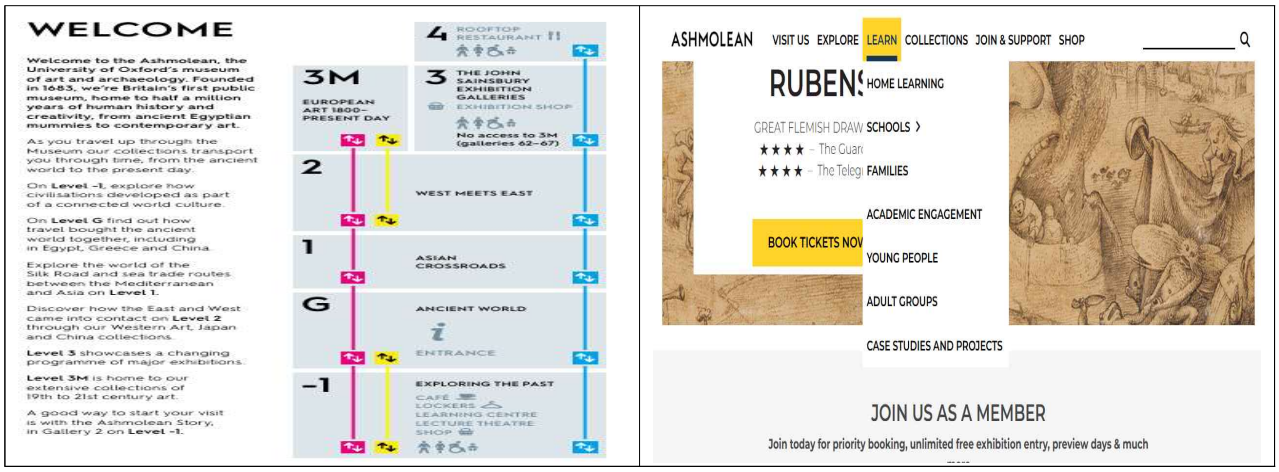


사진 애쉬몰리언 박물관 안내도 및 홈페이지(가족친화 프로그램, 그룹별 프로그램)

○ 젊은 문화예술가의 작품을 구입해 박물관에 전시하는 등 젊은 문화예술가들 양성과 지원에 나섬으로써 박물관의 공공성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는데, 지역의 문화예술가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발굴함으로써 도내 박물관의 공공성과 위상을 끌어올릴 수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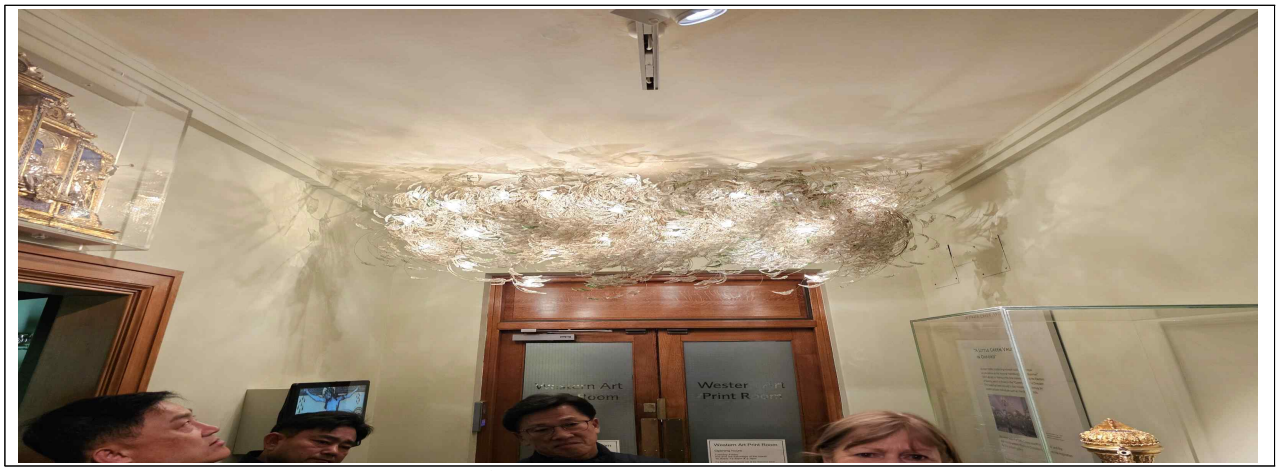


사진 청년 문화예술가 구입 작품 전시

○ 박물관 운영비 마련을 위해 활발하게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박물관 곳곳에 기부함을 비치하고 있음. 또한 2012년 프랑스 인상파 화가 에두아르드 마네의 그림 구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개한 캠페인이 시사하듯, 예술작품 구입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후원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

○ 박물관 홍보를 위해서도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활용하고 있음. 예컨대 박물관은 2024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에서 열린 멧 갈라(Met Gala)에 참석한 패션계 유명 인사들의 오트구튀르와 박물관 소장품 사이의 놀라운 유사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박물관이 소장한 작품을 전 세계인들에게 소개하며 관심을 유도하고 있음

○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형화·획일화된 홍보에서 탈피해 새로운 홍보 방법 등에 고민이 필요해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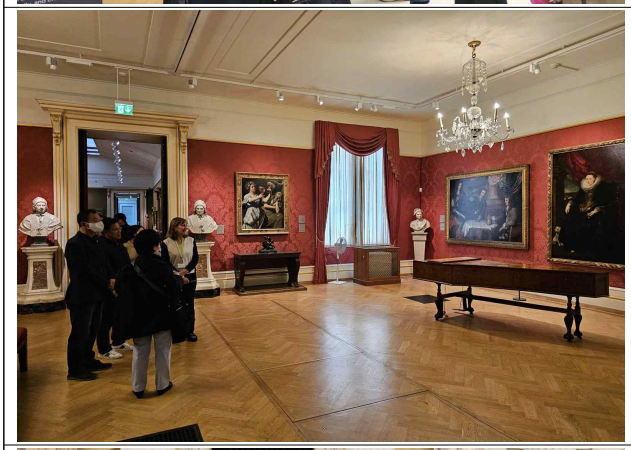
□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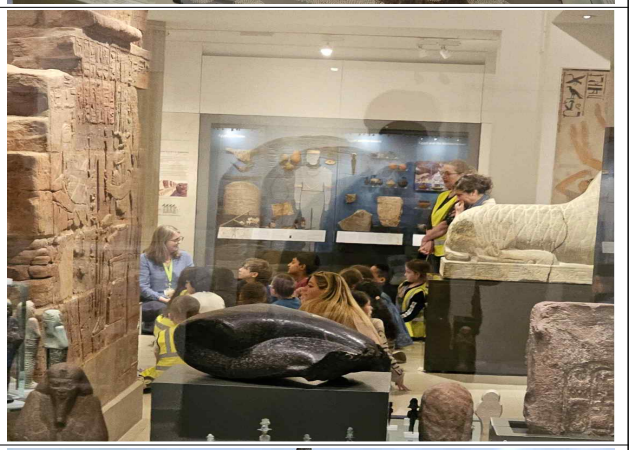
















4 알버트 도크&테이트 리버풀(Albert Dock&Tate Liverpool)

□ 방문목적

○ 긴 침체기에 빠져 있던 리버풀이 다시금 유럽을 대표하는 문화도시(2008년 지정)로 회생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시설로 대표적인 문화재생 우수사례 연구하고자 함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24. 4. 26.(금) 10:00 ~ 12:00

○ 주　　소 : Mann Island Buildings, Royal Albert Dock, Liverpool L3 1BP

○ 홈페이지 : https://www.tate.org.uk/visit/tate-liverpool

○ 기관정보

- 영국 머지사이드주 리버풀에 위치
- 알버트 도크(Albert Dock)는 1846년 알버트 왕자(Prince Albert)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산업혁명 시기에 공식 착공되어 1847년 준공되었고, 현지 건축가인 제시 하틀리(Jesse Hartley)가 설계한 구조물은 목재가 아닌 주철, 석재 및 벽돌로 지어진 영국 최초의 건물로 세계 최초의 불연성 창고 시스템이었으며, 꽤 오랜 시간 리버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도크임
- 목재 대신 벽돌과 주물, 암석을 이용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화재에 강한 물류 창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목화, 솜, 차 등 인기 상품을 보관하는 물류 창고로 명성을 얻었음

- 18세기와 19세기 영국의 번성과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원자재와 생산품의 해상무역이 활발했는데, 이때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누렸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었음
-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선박 크기의 대형화, 새로운 운송방식인 대형 컨테이너화와 항만 관련 산업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항만기능을 상실했으며, 결국 개장 126년 만인 1972년에 문을 닫음
- 1981년 환경부 장관 마이클 헤셀틴(Michael Heseltine)에 의해 설립된 머지사이드 개발 공사(Merseyside Development Corporation)과 부동산 개발업체인 애로크로프트(Arrowcroft) 그룹이 함께 창조적 회복을 시도하면서 알버트 도크(Albert Dock)의 재생이 이루어졌으며, 1988년 알버트 왕자의 증손자 인 웨일즈 왕자(Prince of Wales)에 의해 공식적으로 재개되었음
- 이는 1988년 앙리 테이트(Henry Tate)에 의해 개관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미술관인 테이트 리버풀의 완공 시기에 맞췄으며, 리버풀이 잉글랜드 북부의 국립 현대 미술 컬렉션의 본거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임. 테이트 리버풀은 테이트 세인트아이브스, 테이트 브리튼, 테이트 모던과 같이 영국 예술재단인 “테이트”에서 운영 중임
- 테이트 리버풀은 리버풀 항만 재개발 지구인 알버트 도크에 있는 1840년대의 창고를 제임스 스털링(James Sterling)이 개조한 것임
- 오늘날 알버트 도크에는 레스토랑, 호텔, 아파트, 바 및 테이트 리버풀, 머지사이드 해양박물관 등 박물관의 용도로 사용

되고 있으며, 2018년 영국 왕실의 헌장을 받고 “로열 알버트 도크(Royal Albert Dock)”로 명칭이 바뀜

- 알버트 도크는 테이트 리버풀(1988)를 필두로, 머지사이드 해양박물관(1986), 비틀즈 스토리(1990), 국제 노예박물관(2007) 등 리버풀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집객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함[17]

□ 연수내용

○ 알버트 도크(Albert Dock)에 위치한 상업시설과 테이트 리버풀(Tate Liverpool) 등 주변 문화·관광시설을 시찰하고, 인근 도시재생 사업 이후 현재 상황과 운영현황 견학

□ 시 사 점

○ 테이트 리버풀이 위치한 알버트 도크(Albert Dock)는 리버풀이 영국을 넘어 유럽의 선도적인 도시재생 지구로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정난 등으로 인해 버려진 도크(Dock)를 성격이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 상업시설 등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문화재생 공간으로도 알려져 있음

○ 활력을 얻은 원도심인 알버트 도크(Albert Dock)와 연계하는 대규모의 옥외쇼핑몰을 계획한 순차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

17) 안종천·엄준호·이평직,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기획, 『리버풀 스토리: 역사와 문화를 아로새긴 도시재생』(국토연구원, 2017), 113~114쪽.

진한다는 점에 도시재생 사업이 단순히 점 사업이 아닌 연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해야함을 알 수 있음



사진 알버트 도크 주변 옥외쇼핑몰(좌) 및 박물관·미술관(우, 출처 peakpx)

○ 알버트 도크(Albert Dock)가 관광과 레저 중심의 재생전략에 기반해 문화시설 집적화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해 리버풀의 문화와 관광 아이콘으로 성장한 것처럼, 재생전략으로 문화시설 집적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알버트 도크(Albert Dock)는 도크 내 기존 창고들을 상점, 레스토랑, 바, 카페 등으로 활용하는 등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켰는데, 알버트 도크(Albert Dock)가 시사하듯, 복합공간은 고층건물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 특정지역에서 역사, 문화, 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복합공간 조성을 고민하는 게 필요해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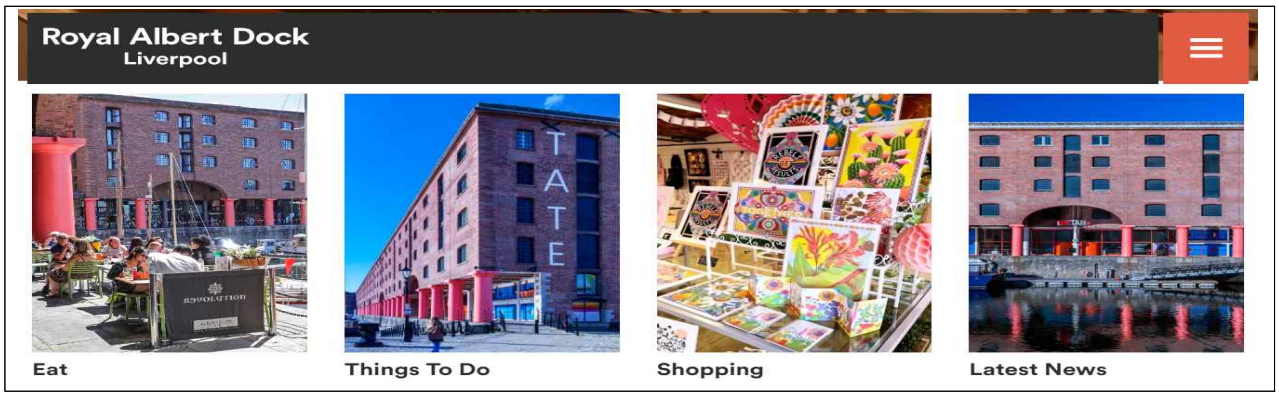


사진 로얄 알버트 도크 리버풀 홈페이지(식당, 관광, 쇼핑 등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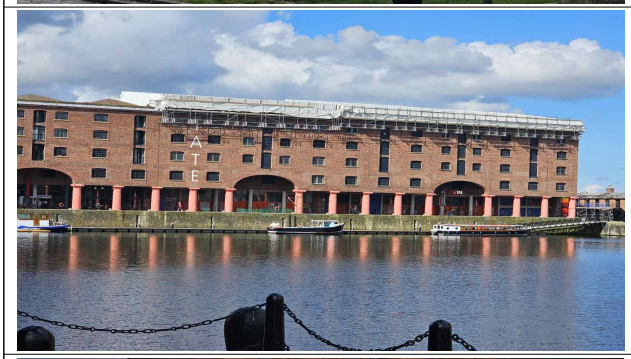
□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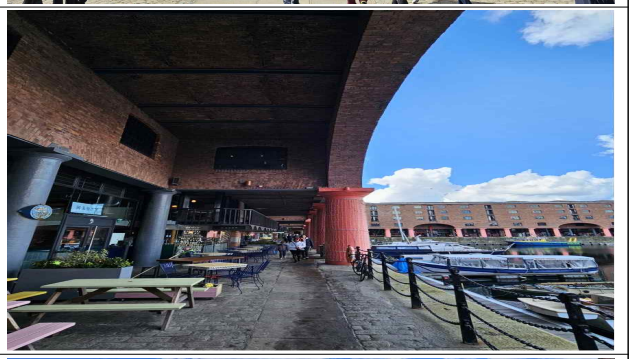

ALBERT DOCK
International Slavery Museum
Merseyside Maritime Museum
Pump House
Tate Liverp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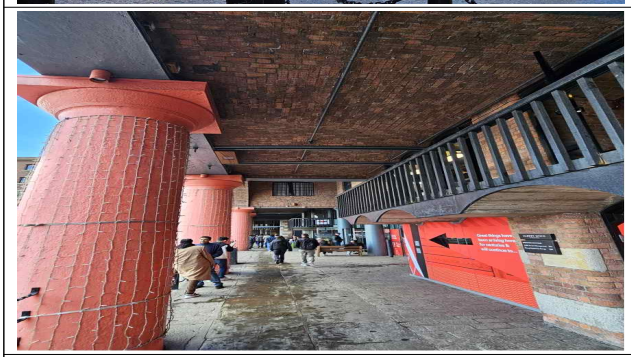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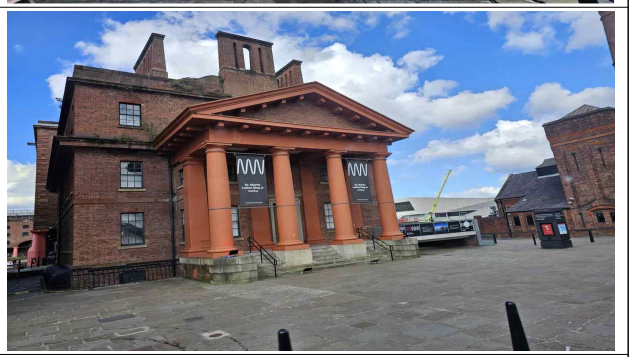

ALBERT DOCK
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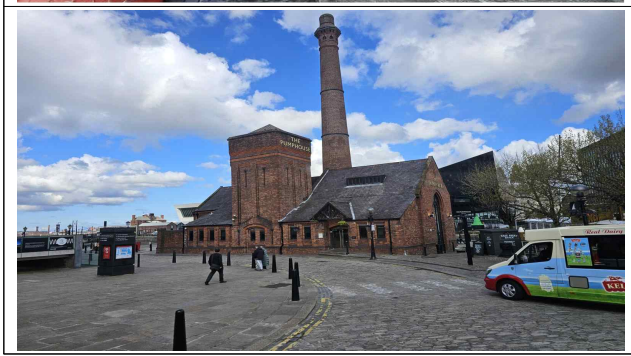

TATE


TATE











5 샐포드 부두(Salford Quay)

□ 방문목적

○ 쇠퇴한 항구시설을 활용하여 문화관광 공간과 상업시설을 확보해 성공한 도시재생 사례를 연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장기프로젝트(Salford Quay 2023)에 대한 개발전략 및 비전을 살펴보고자 함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24. 4. 26.(금) 14:00 ~ 16:00

○ 주　　소 : Pier 8, The Quays, Salford M50 3AZ

○ 기관정보

- 맨체스터 시의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맨체스터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어웰강(River Irwell)과 연결되어 있는 부두(Quays) 지역으로 운하 건너 트래포드(Trafford)가 위치해 있음
-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맨체스터(Manchester)와 바다를 연결하기 위해 1894년 맨체스터 선박 운하 회사에 의해 건설되었음
- 컨테이너화 및 맨체스터 운하 선박 크기 제한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1970년도부터 부두가 쇠퇴하였으며, 영국의 다른 많은 도크와 운하처럼 1982년 폐쇄하였고 약3천명의 일자리가 사라짐
- 1983년 샐포드 시의회(Salford Council)에서 버려진 부두의 일부를 맨체스터 선박 운하 회사로부터 인수하였으며, 이 지역은 샐포드 부두 개발 계획(Salford Quays Development Plan)에 따라 1985년부터 2015년까지 “맨체스터 샐포드 부두

(Salford Quay)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버려진 도크·운하시설을 활용한 인프라 개선 및 수질 개선 등 새로운 경관을 조성함

- 대규모 문화시설을 유치하는 문화도시재생 우수사례이며, 상징적인 랜드마크와 상업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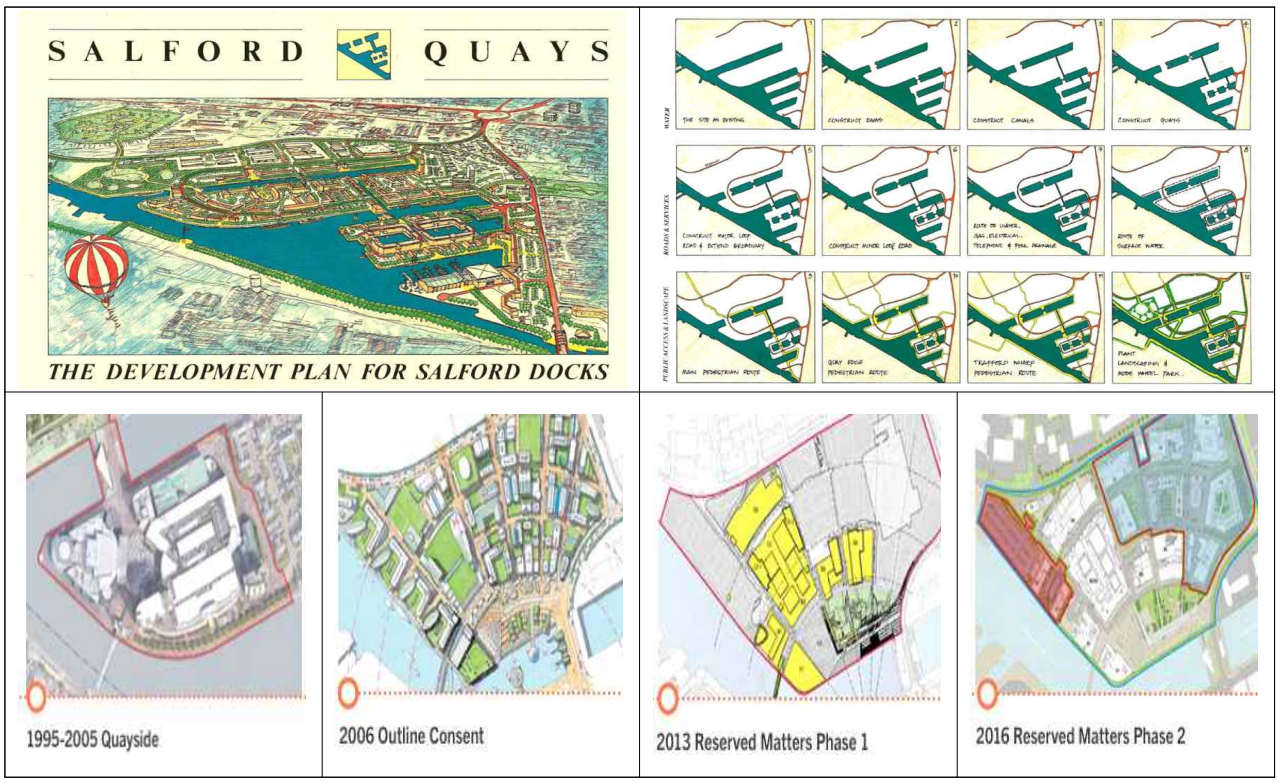


그림 샐포드 부두 개발계획 (출처 Shepheard Epstein Hunter 홈페이지)

□ 연수내용

○ 역사적으로 유명했지만 폐쇄되어 희망이 없는 곳으로 여겨졌던 샐포드 부두(Salford Quays) 중 일부를 재개발하여 주변 일대를 재생한 성공한 사례로 샐포드 부두의 변천사와 향후 미디어 시티(Media City)로 확대 추진하려는 샐포드 부두 개발계획의 현장 등 견학

□ 시 사 점

○ 샐포드 부두 재생사업의 비전은 주거, 상업,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건물로 구성된 수변 도시였으며, 위 사업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인프라 질을 높이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임

○ 그 결과 부두(Quays)에는 로리아트센터(The Lowry Art Centre)와 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 BBC본사 등 많은 시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며, 최근 3월에 “샐포드 부두 2030(Salford Quay 2030)” 프로젝트가 맨체스터 시의회에 의해 채택되었음

○ 해당 내용은 BBC본사 및 ITV 등 250개의 기업이 위치한 현재의 MediaCity를 확장하여 Quayside 주변 지역까지 포함한 공간에 미디어쿼터(Media Quater), 워터프론트&게이트웨이 활성화, 리빙 허브(Living Hub) 제공, 로리아트센터(The Lowry Art Centre)&Quayside 중심 문화·커뮤니티 허브 공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해당 내용에 대해 6주간 온라인 의견수렴이 있었으며, 전체 응답 중 약 74%가 지지한다는 응답을 받음

○ “샐포드 부두 2030(Salford Quay 2030)”에는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비전(Vision)’과 ‘5가지 핵심 원칙’에 따라 진행하여 독특하고 가치있게 만들고자 하였음

- “**사람이 중심인 공간**”으로 주민과 방문객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제공하는 타운 센터를 제공

-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직장 및 여가라는 세 종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함께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통해 예술. 영화, 음악 및 코미디 등을 쉽게 접할수 있는 문화지역으로 나아가고자 함
- “**웰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보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스포츠와 운동을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역사를 기념하는 공간**”으로 부두의 유명한 역사를 기념하고 이를 자원과 이야기 등으로 연결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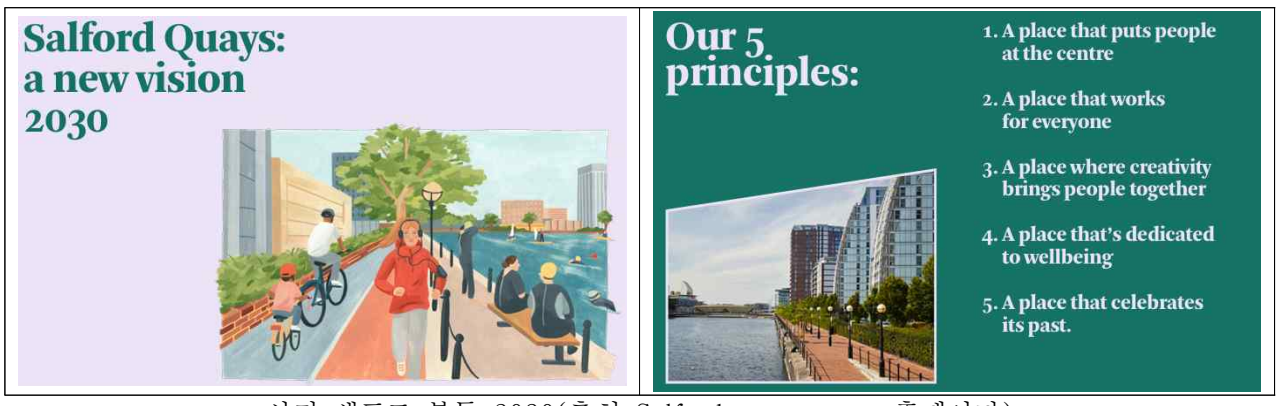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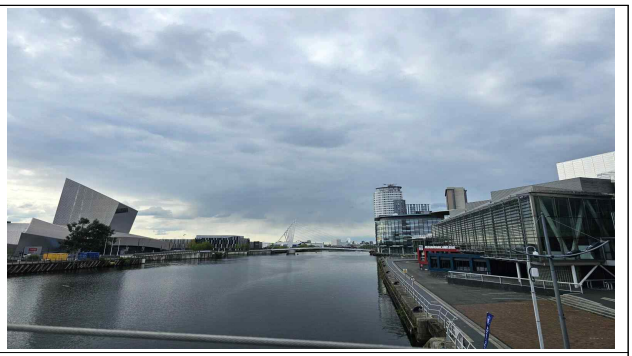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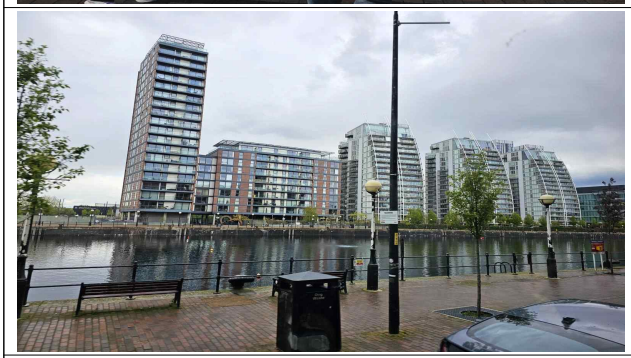
사진 샐포드 부두 2030(출처 Salford government 홈페이지)

○ 우리 도내에 수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발굴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무분별한 테마의 사업이 아닌 샐포드 부두(Salford Quay)처럼 미디어시티 등 분명한 주제나 비전을 가지고 사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관련사진


Welcome to Salford Quays
WE HOPE YOU ENJOY YOUR VISIT
The Quays
Harbour City
Anchorage
Ordsall Park
Salford Quays
Ordsall Hall
Imperial War Museum
Exchange Quay
Wharfside
Hotel Football
Pomona
Old Trafford
Trafford Bar
Trafford Town Hall
Old Trafford
To Stretford
To Chorl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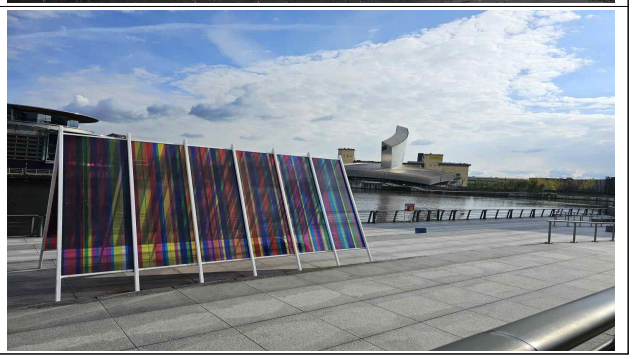







NORTHERN IRELAND:
LIVING WITH
THE TROUBLES
22 March to 29 Sept 2024 | Free entry





6 런던시립대학(University of London, Urban Research Lab)

□ 방문목적

○ 런던의 도시재생 및 도시경관 조성 사례를 듣고,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24. 4. 29.(월) 10:00 ~ 12:00

○ 주　　소 : Northampton Square, London EC1V 0HB

○ 면 담 자 : 김정후 교수(런던시립대학 도시건축정책연구소장)



○ 홈페이지 : https://www.city.ac.uk/

○ 기관정보

- 런던시립대학교는 런던 연방 대학교 중 하나로 런던 중심부 이즐링턴에 위치한 공립대학교이며, 1894년 설립된 노스샘프턴대학에서 출발하여 1966년 왕실의 인가를 받아 종합대학으로 승격 후 학교명 변경함
- 김정후 박사가 주도해 런던에 설립한 도시건축정책연구소(Urban Research Lab)는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의 전문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도시건축 정책을 연구 중이며,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선진국의 최신 도시건축정책을 분석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교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연수내용

영국 등 도시재생 전문가와의 면담

○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이 정부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와의 정책적 차이 등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다양한 사례들에 대하여 전문가와 논의

□ 질의답변

○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영국의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는 곳은 어디인가?

⇒ 영국에서 진행된 도시재생사업은 2000년 이후와 2000년 이전이 다르다. 2000년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했지만 2000년 이후로는 전부 민간자본이 주도하고 있다. 초기의 출발점만 정부가 만들어놓고 모든 것을 민간자본에 넘긴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경험을 통해서 민간자본이 주도해야만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 영국의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이 주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윤추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간자본을 어떻게 사업에 참여시키는가?

⇒ 한국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이윤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영국에서는 반대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자본 역시 도시재생사업이 수익사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 쉽게 말해,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 파는 것과는 다른 방식, 즉 주민들에게 좋은 공공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영국의 도시재생사업은 사회공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수익도 창출하고 좋은 이미지까지 얻게 된다.

○ 민간자본이 주도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배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드는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 민간자본이 주도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해놨기 때문에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시민들이 민간자본이 계획한 도시재생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은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즉 민간자본이 지자체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만족할 제안을 하는 것이다.

○ 그렇다면 시민들은 도시재생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 시민들은 공청회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다. 공청회에서 의견을 취합한 후,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의회의 승인을 거친다. 51대 49의 의견이 나오더라도 공청회에서는 반드시 결론을 내리는데, 주민들이 100% 만족하지 않아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동의한다는 전제를 마련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다.

○ 공청회를 한다면, 횟수나 기간 등을 사전에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인가?

⇒ 아니다. 정해진 것은 없다. 예컨대 한 도시재생사업은 공청회를 3번 하는 데, 2년이 소요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사전에 결론을 미리 정해 놓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과 민간자본이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다. 민간자본은 사업 내용에 찬성하는 주민이 50%에 근접할 때까지 제안을 계속 계속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영국에서 진행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영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 해당 프로젝트가 있으면, 영향권 내 주민과 영향권 밖 주민의 비율을 정해서 참석하도록 하는데, 영향권 내 주민의 참석 비율이 낮으면 공청회는 무효가 된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신이 직접 영향을 받는데 의견제시를 하지 않아 나중에 결과물이 나와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공청회 참여율도 꽤 높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행정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다

⇒ 보통 50%는 넘지 않는다. 대략 30~40퍼센트가량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공청회 참여 유도를 위해서 행정은 여러 방법을 동원한다. 기본적으로 우편을 통해 공청회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며,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지역사회와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청회가 무산될 경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은 공청회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한다.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의 경우, 가장 힘든 부분이 지구단위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다. 지구단위 용도변경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이런 경우, 환수와 관련된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하는가? 지자체에서 하는가?

⇒ 영국은 도시재생을 통해 발생한 이익환수와 관련해서 개념만 명확하게 해놓고 세부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는 불문법인 영국의 법체계에서 비롯한 것이다. 특히 영국은 도시건축 쪽은 다 불문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법체계 때문에 이익환수와 관련해서도 최대한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국가가 정한 상식적 비율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 수익을 공공사업에 환수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포함하고 있을 뿐, 비율로 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비율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느리게 변하는 것은 제도라는 생각과 제도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것이다.

○ 융통성을 강조하다보면 특혜나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

⇒ 제가 21년 동안 영국에 살고 있는데, 도시 건축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대학교수가 비리나 특혜와 연관돼서 구속됐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 왜 그럴까요? 영국에서는 비리나 특혜와 연관이 되면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3대가 생존이 불가할 정도다. 그만큼 엄격하고 투명하다는 이야기다.

○ 한국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0여 년밖

에 되지 않았지만 사업이 끝나면 뭔가 대단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결과가 바로 안 나오니까, '도시재생사업 해봤자 효과 없다. 예산 낭비다'라는 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 도시재생사업은 길게 보아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최소 기간이라고 해서 정해진 게 없다. 즉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게 도시재생이다. 여러분들이 방문한 테이트 모던도 계획 기간만 5~6년가량 걸렸고, 킹스크로스 재생사업은 1992년 시작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제 이야기는 도시재생사업을 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즉 5년이나 10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는데, 영국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나?

⇒ 우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18]에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워낙 사회문제가 되어서인지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시켜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의 대상으로 볼 건지, 관리의 대상으로 볼 건지 먼저 입장을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지에 집중할 게 아니라 관리에 관심을 두는 게 필요하다. 관리란 좋은 점을 살리면서 나쁜 점을 막아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아야 장점을 활용할 수 방안도 찾을 수 있다.

18)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

□ 시 사 점

○ 도시재생사업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인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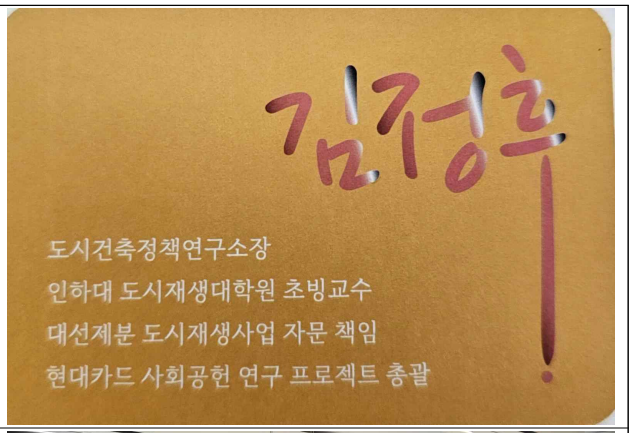
○ 행정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선 민간자본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환경 마련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자본이 투입될 경우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자본에게도 영국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사회공헌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제안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공청회 등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정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관련사진


CITY
UNIVERSITY OF LONDON
EST 1894
Dr. Jeong Hoo Kim
Department of Media, Culture and the Creative Industries
City, University of London
Northampton Square, London, EC1V 0HB
+44 (0)20 7040 5569 / +44 (0)77 2531 6582
+82 (0)10 5095 8040
robin.kim@city.ac.uk / director@jhkurbanlab.co.uk


김정후
도시건축정책연구소장
인하대 도시재생대학원 초빙교수
대선제분 도시재생사업 자문 책임
현대카드 사회공헌 연구 프로젝트 총괄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교육위원회 합동국외정책연수


CITY
College Building


CITY

7 테이트 모던(Tate Modern)

□ 방문목적

○ 폐쇄된 화력발전소를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역 랜드마크가 되면서 낙후된 공업지역이자 구도심 지역인 뱅크사이드(Bankside)을 도시재생한 사례를 연구하고, 도내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굴하고자 함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24. 4. 29.(월) 13:30 ~ 15:00

○ 주　　소 : 53 Bankside, London SE1 9T

○ 홈페이지 : https://www.tate.org.uk/visit/tate-modern

○ 기관정보

- 2000년 5월 영국 정부의 밀레니엄 프로젝트 일환으로 템즈강변 뱅크사이드 발전소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들어선 현대 미술관
- 테이트 리버풀(Tate Liverpool),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 테이트 세인트아이브스(Tate St Ives) 등과 같이 영국 문화예술재단 테이트(Tate)에서 운영중임
- 뱅크사이드 발전소는 2차세계대전 직후 런던 중심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졌던 화력발전소로 영국의 빨간 공중전화 박스 디자인으로 유명한 건축가 길버트 스코트에 의해 건축됨
- 발전소용으로 사용되던 높이99m의 굴뚝을 이용하여 테이트 모던의 상징을 만들었으며, 미술관 건물 자체로만으로도 볼

거리가 된 테이트 모던은 연간 4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명소임

- 템스강변 모든 방향에서 걸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의 용이성과 무료 관람에 따른 자유로운 출입을 매개로 런던 시민들에게 미술관 이전에 편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휴식처이자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1층(터빈홀)은 예술가와 시민에게 광장이나 공원의 역할을 할 정도로 자유로운 개방 공간이자 청소년과 어린이, 관람객들이 도시락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편안하게 누워서 책을 보는 공간 역할을 수행하는 매력적인 공공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19)]
- 테이트모던의 공공성은 이른바 테이트모던의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데이트 커뮤니티 가든에서도 드러나는데, 이곳은 테이트 모던의 야외 전시장, 거리 악사들의 공연장, 크리스마스 장터 등의 기획 행사가 열리는 다목적 공간으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등 테이트모던은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20)]
- 테이트 모던은 지역주민과 관람객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과 편의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젊은 문화예술가들이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젊은 예술가들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테이트 모던과 지역주민 및 관람객, 예술가 모두가 함께 성장해나가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했음[21)]

19) 김정후, 『런던에서 만난 도시의 미래』(21세기북스, 2020), 44~45쪽.
20) 김정후, 『런던에서 만난 도시의 미래』(21세기북스, 2020), 54~55쪽
21) 윤주, 『우리가 알아야 할 도시재생 이야기』(살림, 2017), 78쪽.

□ 연수내용

○ 테이트 재단에서 운영하는 현대미술관에 대한 운영체계 등 자료를 조사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 역할 및 지역 예술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견학

□ 시 사 점

○ 노후화되거나 폐쇄된 산업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이자 문화재생사업으로 성공한 사례, 다수의 현대 미술작품들을 공공에 무료로 전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함

○ 입장료가 무료인 상황에서의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며, 한국의 박물관 운영방식에 공공성과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 장기적으로 방치된 건축물을 활용한 랜드마크화를 하기 위해 어떠한 시설로 적용해야할 지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과 적극 논의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생시설의 경우, 지역주민 및 관람객에게 편안함과 즐거

움을 제공하는 휴식처이자 안식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공간 구축이 필요함



사진 테이트 모던(Tate Modern) – 휴식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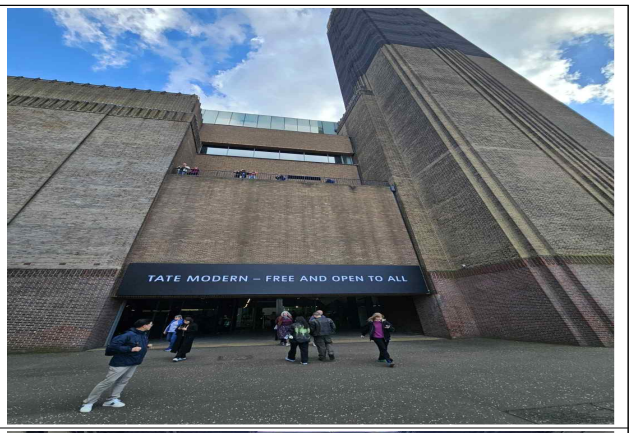
○ 지역사회 내 젊은 예술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가꾸는 동시에 지역주민 및 관람객, 예술가 모두가 함께 성장해나가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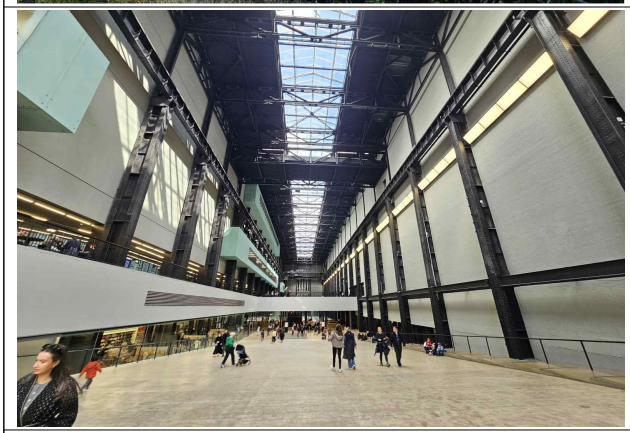
○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하되, 주변 지역까지 연계해 문화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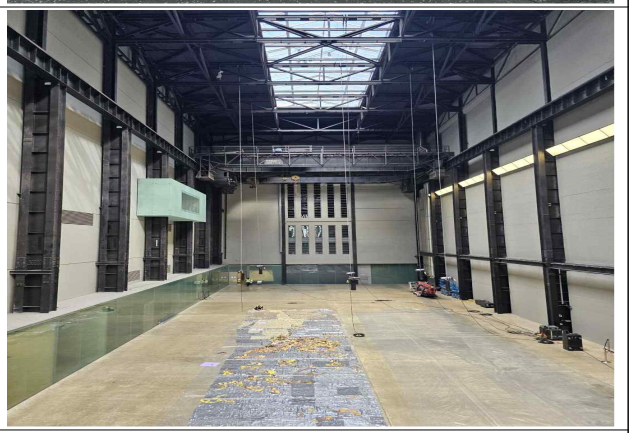
○ 일부 특별전시회를 제외한 모든 전시를 무료로 진행하는 테이트 모던은 곳곳에 독특한 디자인의 기부금 상자(Donation Box)를 배치해두고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기부금을 모으고 있는데, 대부분 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문화재생기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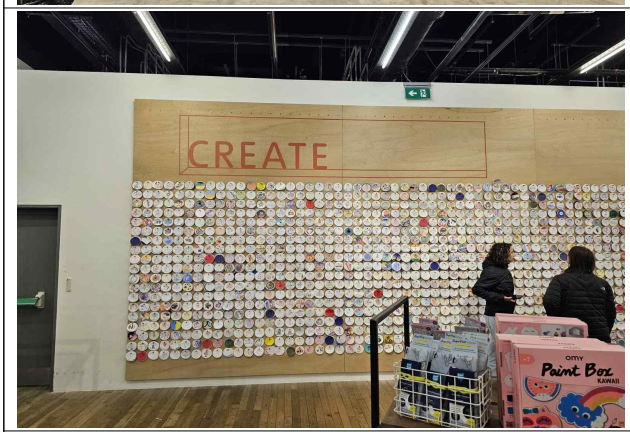
□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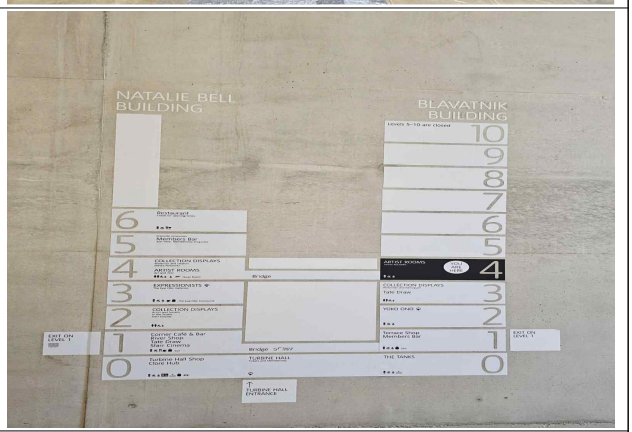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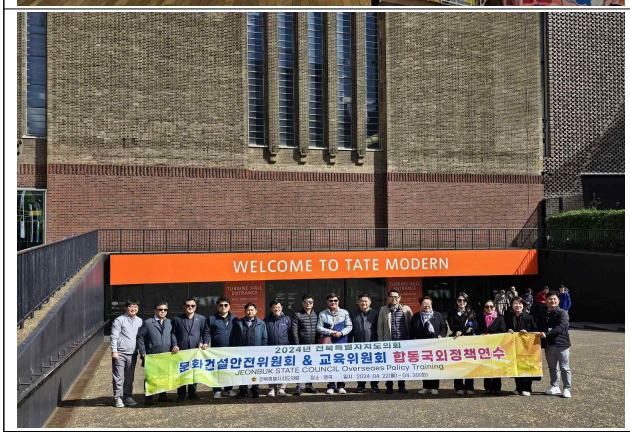

TATE MODERN – FREE AND OPEN TO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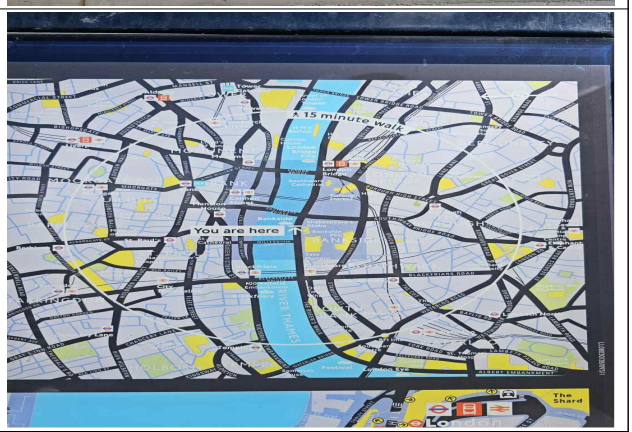





CREATE
Paint Box


NATALIE BELL BUILDING
BLAVATNIK BUILDING


WELCOME TO TATE MODERN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경설안전위원회 & 교육위원회 합동국외정책연수
JEONBUK STATE COUNCIL Overseas Policy Training


15 minute walk
You are here
The Sh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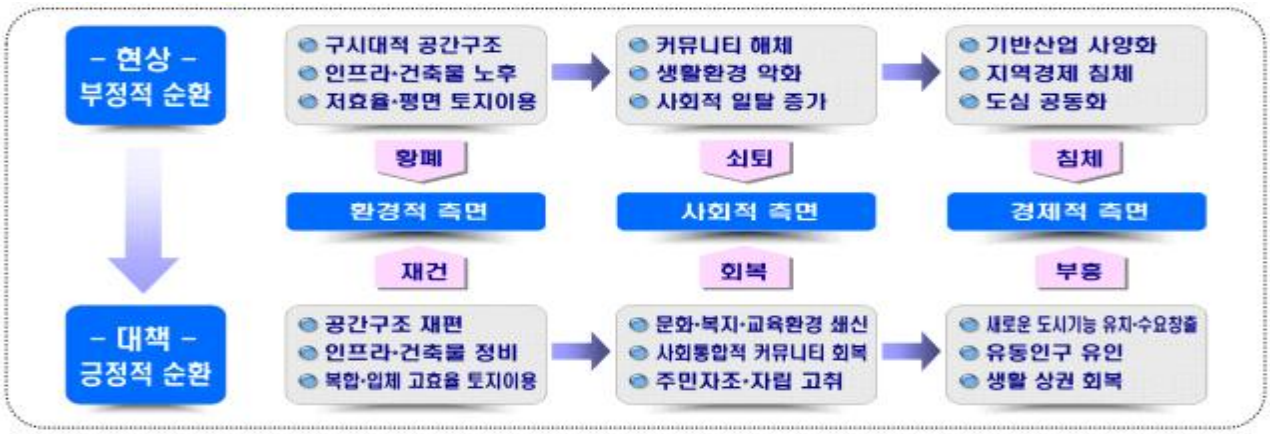
Ⅳ 국외정책연수 관련 연구자료

1.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연구자료

❶ 도시재생사업(Urban Regeneration)의 개념과 목적

○ 극심한 도시쇠퇴와 도심 공동화를 겪은 서구 선진국은 1970~1980년대의 도시재개발(Urban Revelopment)과 도시갱신(Urban Renewal)을 시행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재슬럼화가 되는 현상을 경험

○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부흥(Urban Renaissance)에 목표를 두고 도시경제의 회복과 사회·교육·복지·문화의 질적 개선과 종합적인 도시발전이라는 '도시재생'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적으로 추진 (NewDeal for Community-마을 만들기 등)



자료 도시재생사업기획보고서-건설교통부(2007)

○ 도시재생 정의(「도시재생법」 제2조)

-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 도시재생의 목표

– 경제적 재생 : 도시형 신(창조)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 등

– 사회적 재생 : 시민참여, 주민주도, 자력재생, 삶의 질 향상 등

– 물리적 재생 : 노후 주거환경 개선, 상가·시장 정비, 기반시설 확충

– 환경적 재생 : 공원·녹지 확충, 수변공간 확보, 공간자원 재활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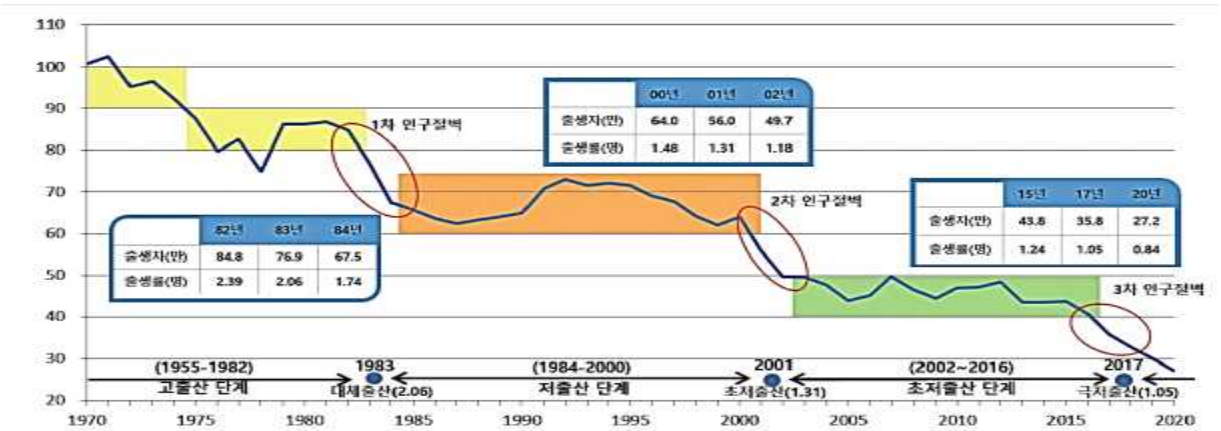


❷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배경

○ 토지, 개발, 자본 중심의 무한적 도시개발과 도시발전의 한계

– 관(정부)주도적, 자원소모적, 토건적 개발 및 도시성장에 따른 관리 부재가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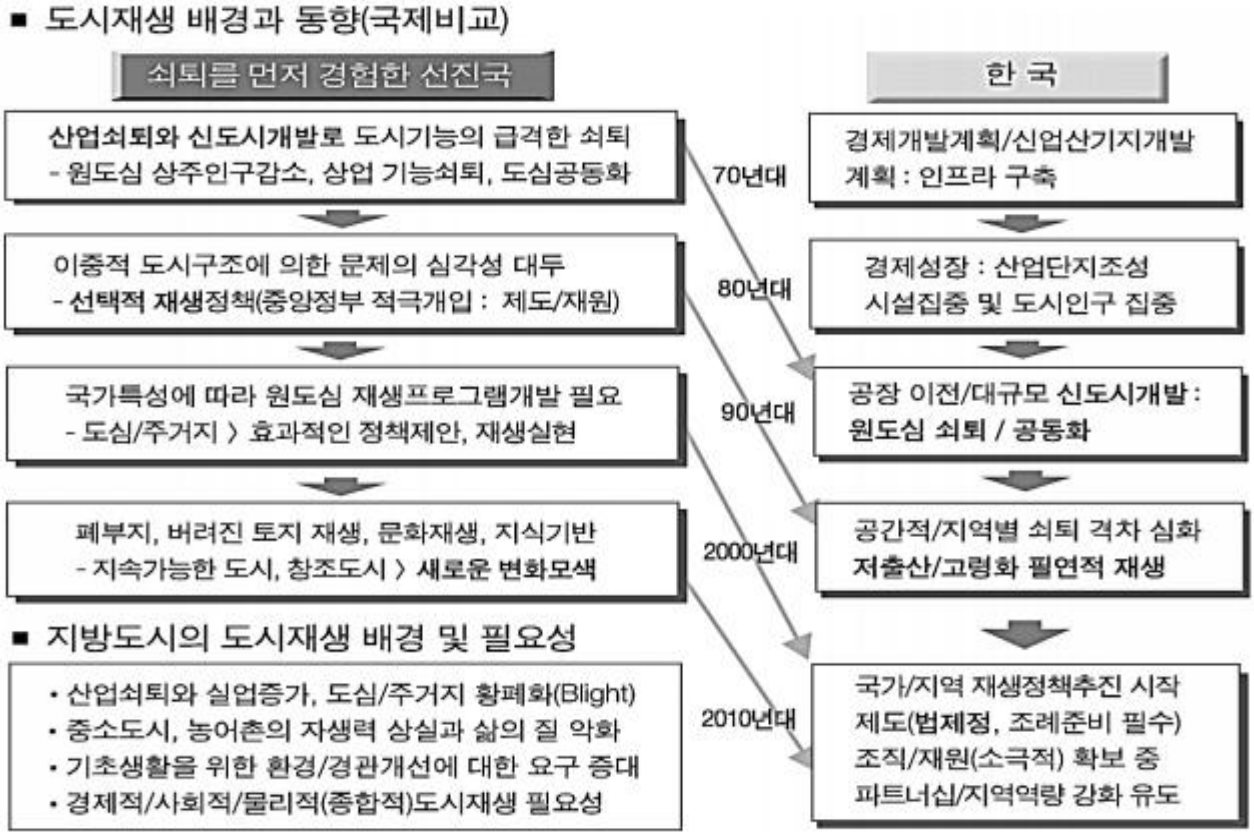
– 결국, 인구 및 청년층 감소, 고령화, 수도권 집중현상일 발생하면서 '지방소멸시대' 초래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 불균형적 도시개발과 무임승차형 공동주택단지 조성

- 불균형적인 도시기능 및 구도심의 쇠퇴(인구감소, 노후화)
- 원도심지역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환경 악화와 삶의 질 저하
- 성장관리정책이 부재하고, 구 시가지에 대해 방치하며 신 도시만 개발하는 문제 발생



자료 「도시재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2015)」p.37

○ 2000년대 중반 서울뉴타운 사업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토부가 지방도시 쇠퇴를 지역이 주도해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기존 도시 재정비 정책[22]을 만들었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음

22) 정부 주도 도시재생사업 시작으로 보고 있음

❸ 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현황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거점 조성** 및 **지역 특화재생**을 위한 도시공간 재창조

<기본방향>

-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 통해 **도시공간 혁신 도모**
-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주요추진방향>

-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 개편**
  - 사업유형을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생]으로 개편하고,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연40곳 내외 규모있는 사업 지원
  - 성과연동형 예산체계 도입 및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거점 조성 확산**
  -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지구 조성
  - 점단위 패키지(Package) 사업이 아닌 면단위 개발방식으로 규모가 크고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
- **민간참여 활성화**
  - 공공 거점사업에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참여로 도시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민관협력형 리츠 확대 추진
  - 민간제안형 리츠 활성화 및 특화재생사업에 민간참여 모델 발굴·확산
-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
  - 융자지원규모 확대 추진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을 통한 주택정비 활성화
  - 주차장·복지시설 등 도시재생 기반시설 확충 및 스마트기술 접목 확대 등을 통한 노후주거환경 개선
- **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 사업추진체계 개선**
  - 사업추진체계(지원센터·협의체 등) 운영시 지자체 역할 확대
  - 전문가 역량강화 중심으로 추진방식 개선

○ 사업유형 및 특징, 추진절차

도시재생사업 유형



경제재생형 - 혁신지구

공공주도 산업 · 상업 · 주거 등
복합 지역거점 조성



특화재생형

지역 고유자원 및 특성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우리동네 살리기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 · 지원



인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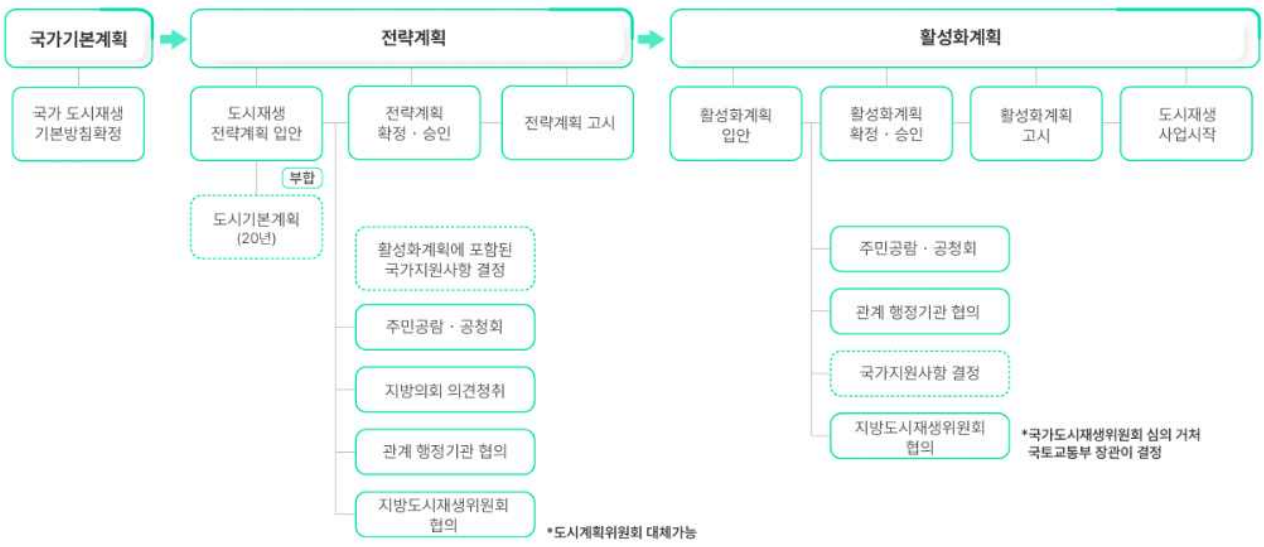
도시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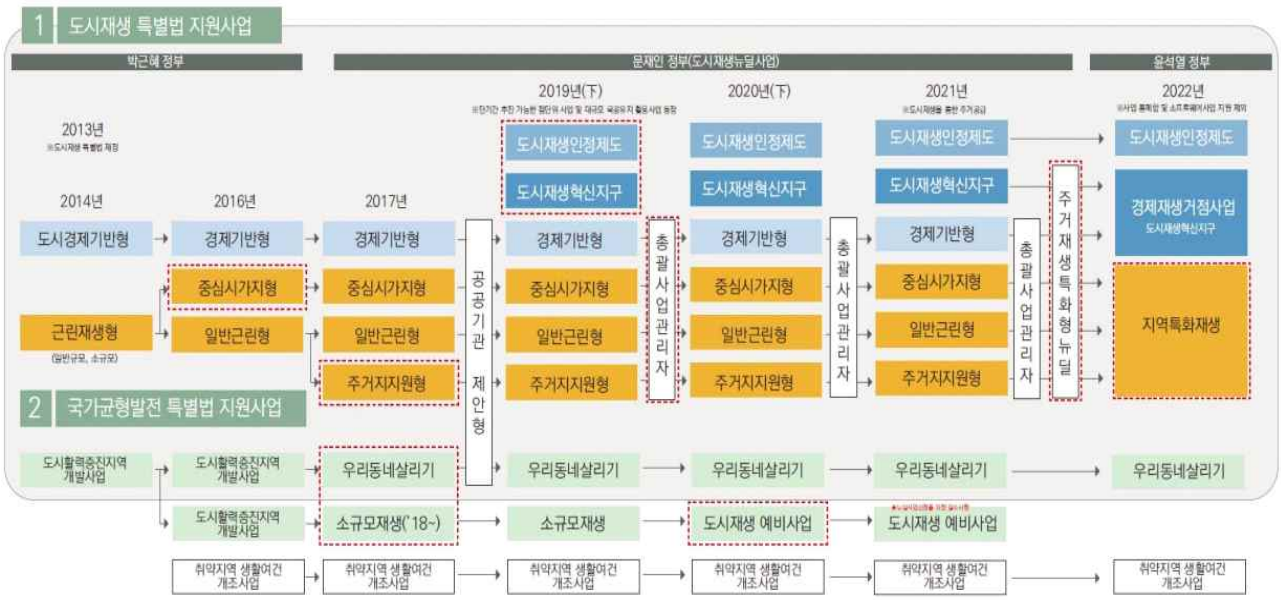
구분	혁신지구	특화재생형	인정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계획수립	혁신지구계획수립 후 사업시행 시 활성화계획 수립	활성화 계획 수립	인정사업 계획 수립	우리동네 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지정요건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 국가 시범지구지정요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쇠퇴지역요건 2개이상 충족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적기준 미달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하는 도시지역 (국계법 상)
권장면적	200만m^2 이내 *주거재생 20만m^2 이내	면적제한 없음	10만m^2 미만 첨단위 사업	5만m^2 이내
국비지원/집행	250억원/5년		50억원/3년	

도시재생 추진 절차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도시가 얼마나 쇠퇴하였는가'를 선 진단해야 합니다.
도시의 쇠퇴도는 인구감소 · 사업체 수 감소 · 생활환경 악화 등과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을 도출합니다.



자료 출처(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자료 역대 정부별 도시재생사업 유형체계(출처-도시재생사후화 관리방안 연구용역, 2023)

❹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현황

○ 전북과 시·군에서는 일찍부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2014년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로 참여하기 시작함

○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지로는 14개 시·군에 총 100개소가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52개소, 도시재생예비사업 45개소, 전북형 도시재생사업 3개소가 있음. 이 중 7개소 사업지는 사업이 완료되었음

➢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지 : 100개소
- 도시재생사업 52개소, 도시재생예비사업 45개소, 전북형 3개소
- 7개 사업지 사업 완료(전주 3개소, 군산 2개소, 익산 1개소, 남원 1개소)
➢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총 사업비 8,003억원(국비 4,722억원, 지방비 3,281억원)

구분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합계	100	18 (3)	13 (2)	9 (1)	8	7 (1)	5	7	3	9	3	5	3	4	5
도시재생 사업	52	10	7	6	4	5	3	2	1	4	1	3	1	3	3
예비사업	45	8	5	3	4	3	2	5	2	5	1	2	2	1	2
전북형	3	-	1	-	-	-	-	-	-	-	1	1	-	-	-

※ ( ) : 사업종료 지역

❺ 영국의 도시재생사업 현황

<영국의 도시재생 개념>

○ 영국에서는 '도시재생' 개념을 "쇠퇴지역에 대한 개별적·문제해결식 처방이 아닌, 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하에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전제로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국은 18세기 산업화 이후 급격한 '도시화', '탈도시화', '교외화' 현상을 겪었으며, 이로 영국 도시들은 많은 도시문제를 경험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 개념의 정책[23]들을 적용해 왔음

- 슬럼 제거(Slum Clearance, 1930년대)→도시 재건설(Urban Reconstruction, 1950년대)→도시 재활성화(Urban Revitalization, 1960년대)→도시 재정비(Urban Renewal, 1970년대)→도시 재개발(Urban Redevelopment, 1980년대)→도시 재생(Urban Regeneration, 1990년대)→도시 부흥(Urban Renaissance,2000년대)→도시 레벨링업(Urban Levelling-Up,2010~2020년대)

<영국의 시기별 도시재생 정책[24]>

○ 1930년대(근대적 개념의 도시재생정책)

- 슬럼제거 지역 지정과 광역개발지역 지정 정책(The Housing Act)

○ 1966년(최초의 토지보조금)

○ 1968년~1980년초반(Urban Programme)

○ 1978년(Inner Urban Areas Act 제정)

- 도시정책을 중앙정부의 주요시책으로 만드는데 공헌

23) 서울시청개발연구원, 영국 도시재생의 유형별 성공사례 분석(2008) 연구요약vii
24) 서울시청개발연구원, 영국 도시재생의 유형별 성공사례 분석(2008) p.9~13

○ 1980년(도시개발공사 UDC 설립)

- 보수당 대처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정책으로 도시개발공사인 UDC(Urban Developement Corporations) 설립
- 부동산 중심의 민간자본 유입(PFI, Private Finance Incentive) 장려로 투자 유도에 성공적인 역할

○ 1981년(EZs 지정)

- 세금과 도시계획규제의 완화 혜택이 있는 EZs(Enterprise Zones) 구역 지정

○ 1986년(Task Force 구축)

- 도심지역 재생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영부분, 자발단체간의 효율적인 협력과 조정을 위해 만듬

○ 1994년(EP, English Partnerships)

- 잉글랜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동산 및 교부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재정은 중앙정부의 통합재생예산(SRB, Single Regeneration Budget)를 통해 마련

○ 1990년대(지역기반주도 방식-ABI)

- 보수당의 메이저 정권은 대처 정권의 경쟁입찰 기반으로 한 민간자본 활용의 특징을 계승하면서 지역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ABI, Area-Based Initiative)

○ 1998년(NewDeal for Communities Programmes)

-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장소중심적'인 도시재생 프로그램

<영국의 도시재생사업 특징[25]>

○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 지방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관련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양도하는 방향 제시

○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 2003년 Local Government Act의 'Prudential Borrowing' 지침에

25) 도시재생사업단 총괄과제, 해외 도시재생 추진체제 및 사례(2011)

따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도 공공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함

○ 지역사회의 참여

- 1990년대 공공·민간·시민단체·지역공동체의 파트너쉽 구성
-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고민·해결해 봄으로써,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제시
- 개별사업(Project)가 아닌 재생계획(Scheme)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 전문적인 추진기구

- 도시재생의 재원조달 방식이 공공과 민간자본이 복합하는 추세에 대응하고자 UTF(Urban Task Force)에서 제안했듯이 전문가에 의한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증대
- 2000년 도시재생공사(URC, Urban Regeneration Corporation), 도시개발회사(CDC, City Development Company)에 의해 구체화 됨

<영국의 도시재생사업 시사점>

○ 영국은 물리적 환경 정비에만 치중했던 도시재생 사업 방식이 오히려 그 지역의 주민들을 쫓아내는 결과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으로 나타남을 깨달아서, 공간 자체의 재생사업이 아닌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에 초점을 두어 경제적·사회적 재생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영국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참여, 교육과 사업의 홍보·지원 등의 전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참고문헌·사이트】

《국 내》

1. 김정후, 『런던에서 만난 도시의 미래』(21세기북스, 2020).
2. 윤주, 『우리가 알아야 할 도시재생 이야기』(살림, 2017).
3. 곽대영·한아름, 『공장 굴뚝에 예술이 피어오르다: 북유럽 도시재생』(미세움, 2016).
4. 윤일성, 『도시는 정치다: 도시정치, 도시재생, 도시문화 읽기』(산지니, 2018).
5. 마강래, 『지방도시 살생부: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개마고원, 2017).
6. 제종길 엮음, 김정원 감수, 『도시재생 학습: 지역주민과 정책결정자를 위한』(자연과생태, 2018).
7. 안종천·엄준호·이평직,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기획, 『리버풀 스토리: 역사와 문화를 아로새긴 도시재생』(국토연구원, 2017).
8. 이은화, 「파격과 혁신의 아이콘: 테이트 모던, 런던(1편)」, 『네이버프리미엄 콘텐츠』, 2022.
9.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https://www.city.go.kr)

《해 외》

1. 애쉬몰리언 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ashmolean.org)
2. 영국전국명소협회 홈페이지(https://www.alva.org.uk)
3. 미카아키텍츠 홈페이지(https://www.micaarchitects.com)-애쉬몰리언박물관\ 마스터플랜
4. 「Ashmolean Museum Manet painting campaign receives boost」, 『BBC』, 8 May 2012
5. 「Met Gala 2024: Ashmolean Museum's exhibits have uncanny similarities」, 『BBC』, 8 May 2024.
6. 「Ashmolean Museum Oxford Annual Review 2022/2023」, 2024
7. 내셔널뮤지엄리버풀 홈페이지(https://www.liverpoolmuseums.org.uk/royal-albert-dock-liverpool)
8. 알버트도크 홈페이지(htt[s://www.albertdock.com]
9. 샐포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https://www.salford.gov.uk)
10. 「Salford Quays: a new vision 2030」, 2024
11. Shepheard Epstein Hunter 홈페이지(https://www.seh.co.uk/projects/salford-quays-masterplan)-샐포드 부두 재생사업 마스터플랜
12. 테이트모던 홈페이지(https://www.tate.org.uk/visit/tate-modern)

2. 교육위원회 연구자료

❶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배경

— 영국의 열린교육에서 비롯된 학교시설 복합화 배경[26]

○ 영국에서는 비형식 교육(Informal education)으로 시작된 열린 교육과 함께 1930년대 이후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움직이 있었음. 1976년에 평생교육법이 성립되면서 커뮤니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아울러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증가되었음.

○ 이러한 과정 속에서 평생교육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국의 교육시설은 다양한 방향으로 복합화되기 시작하였음.

○ 1940년대부터 공립학교에서 체육을 윤리교육의 일환으로 채택하여 스포츠맨쉽을 신사도 정신으로 생활화가 싹이 트게 되었음.

○ 1960년에는 체육발전장기계획이 제안되었고, 계속하여 1965년에는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을 정부가 인정하여 광범위하게 국민스포츠를 진흥하고 스포츠시설의 정비촉진하기 시작하였음.

○ 또한 정부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모든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완전히 개방함으로써 사회체육의 진흥에 박차를 가하였음.

○ 1972년에는 모든 국민의 스포츠 운동 캠페인이 착수되어 스포

26) 최병관, 영국의 학교복합화 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 사례,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3권 제4호(통권 제57호), 2006. 10., 59~60쪽.

츠시설의 확충정비와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스포츠의 위치를 가지게 하기 위한 스포츠 10개년 계획이 발표되었음.

- 1975년에는 가족 스포츠 운동을 전개하여 기존 스포츠 시설의 활용 극대화를 추진하여 사회체육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기회 제공과 시설 마련에 적극 개입하고 있고, 사회체육에 직접 관장하고 있는 지역 스포츠위원회와 협조하여 사회체육 활성화에 노력해 왔음.
- 전국 공립학교는 영국 교육부의 감독 하에 일정한 체육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도시의 도심지 학교에 대해서는 인근의 공원을 학교체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음. 또한, 대중위생법, 대중 체육, 레크레이션법에 의해서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일반규모의 체육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사회체육은 자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치조직으노는 영국올림픽연맹(Boa), 1935년에 설립된 체육·레크레이션중앙회(ccpr), 전국운동장협회(npfa)가 있으며, 스포츠에 관한 국가기관은 주정부, 전국 교육위원회,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은 모두 스포츠활동을 장려하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음.
- 이러한 일련의 스포츠, 레저, 레크레이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 속에서 전 국민의 생활화가 되면서 이를 수용하는 시설수요가 학교시설로 복합화 되면서 학교가 지역문화의 중심센터로 발전하게 되었음.

❷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방향[27)]

— 학교시설 복합화의 두 가지 흐름(trend)과 통합형태

1. 빌리지 칼리지(village college)의 흐름

○ 1920~1930년대의 캠브리지주 빌리지 칼리지(Cambireshire village college)의 흐름으로 교육서비스는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Community)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시작되었음.

○ 이는 중학교 교육과 커뮤니티 교육을 통합하여 중학교 교육은 낮에, 커뮤니티 교육은 야간에 동시에 중학교를 이용하여 추진하면서 시도되었음.

○ 이러한 흐름은 그 이후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었음.

2.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흐름

○ 체육시설을 충실히 하여 주민에게도 개방하기 시작하였음.

○ 국고보조금으로 학교체육관을 종래의 시설에 증축하여 비교적 소규모의 스포츠 홀을 부설하거나 포장한 소규모 운동장을 부설하는 등 학교 규모가 확대되면서 실내 수영장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였음.

3. 두 가지 흐름(trend)을 통합형태 운영

27) 정연숙,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학교복합시설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53~54쪽.

○ 1970년경에는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이 하나로 통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음.

○ 영국에서는 1971년에 평생교육법의 재구성을 언급한 러셀보고서가 나왔음.

○ 영국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치원, 보육원, 초등학교 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하게 되었으나, 학교의 의자나 책상 등이 작아서 이용하기 불편하여 별도로 성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체육시설 근처에 부설하게 되었고 이것이 가족센터(Family Center)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음.

❸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방법[28)]

1. 학교시설 복합화 촉진 방법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서비스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형성하도록 한다.

○ 교육시설과 스포츠, 레크레이션, 레저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을 최대한 유도하여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 커뮤니티의 이해나 인식, 지원, 공헌, 문제의 해결, 교류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신체장애인과 특별한 요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8) 최병관, 앞의 논문, 60쪽.

○ 이와 같은 복합시설의 모든 결정, 관리, 운영에 적극적인 참가를 촉진한다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2. 학교시설 복합화 경위

○ 학교시설의 복합화 경위를 살펴보면, 학교는 교육위원회, 스포츠센터는 레저와 에메니티 위원회가 담당하고 담당 시설도 각각 별도로 건설해 왔지만,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복합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기능이 동일한 시설을 복합화하면 보다 좋은 시설을 건설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임.

❹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과 민간투자사업(PEL)의 도입[29)]

1. 학교시설 개선 사업 추진

○ 1997년 7월 영국 정부는 초과이윤세(Windfall tax)를 재원으로 시행될 학교뉴딜사업(New Deal for Schools)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였음.

○ 학교시설 개선 작업을 위하여 10.85억 파운드(현재 기준 한화 약 1조 8,845억원)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 재원을 이용하여 약 7,500개의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29) 최병관, 앞의 논문, 60쪽.

○ 1997년 12월에 영국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의 공공/민간 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승인하면서 학교시설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

2.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 적극 반영

○ 그 이후 1998년 학교기준법의 개정으로 학교의 자율운영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재정지원체계를 개정하였음.

○ 이는 학교부지의 효율적 이용과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부지 마련, 학교건물 개선이나 현대화와 같은 일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지방교육청도 시설개선을 위하여 자본을 투자할 수 있고, 예산책정도 가능하게 되었음.

○ 학교시설 사업계획 초기부터 학교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

○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음.

3. 학교시설 복합화의 성공적 모델 창출

○ 일련의 학교시설 복합화 과정을 통하여 영국은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자본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교육부 주요사업 중 하나로 지원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음.

○ 또한 지역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시설개선에 대한 정보수집, 필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합리적 비용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음.

○ 따라서 영국은 학교시설 복합화의 성공적 모델을 세계 최초로 창출하여 안착시키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음.

4. 학교시설 복합화의 경향 또는 추세

○ 영국의 이러한 일련의 학교시설과 관련된 정책수립 등으로 공공/민간 협력사업은 학교시설과 정보소통 네트워크 구축, 학교 급식사업, 기타 학교시설 개선사업 전반에 걸쳐서 교육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어 갈 경향 또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❺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설치 유형[30]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의 사례를 살펴보면, 복합화 설치 유형은 대상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① '학교시설+커뮤니티룸', ② '학교시설+스포츠(레저)센터', ③ '커뮤니티 스쿨', ④ '대규모 복합시설', ⑤ '별동형 복합시설' 등 크게 5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

30) 정연숙, 앞의 석사학위논문, 56~59쪽.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유형[31)]

복합화 유형	특 징
학교시설+ 커뮤니티 룸	학교시설을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학교에 커뮤니티의 거점을 설치하여 학교시설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학교시설+ 스포츠(레저)센터	학교와 일체형으로 스포츠센터와 데이케어센터, 분리형으로 스포츠 홀과 레저 센터, 대규모 커뮤니티센터, 여러 학교가 사용하는 스포츠센터 등의 복합시설이 있음
커뮤니티 스쿨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전제로 학교를 건설하고 학교와 지역이 학교를 공유하는 형태
대규모 복합시설	학교와 지역에 필요한 10개 이상 각종 시설들의 공동 이용을 전제로 복합화하는 형태이며, 학교도 이러한 복합시설 중 하나로 구성되는 방식
별동형 복합시설	소규모 건물군으로 분리하여 구성한 유형으로 학교도 여러 개의 건물들을 분리하여 형성되고, 건물과 건물은 복도 등으로 연결되어 있음.

1. 학교시설 및 커뮤니티 룸

○ 커뮤니티 룸의 명칭은 다양하지만, 규모는 작고 학교시설을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커뮤니티의 거점을 설치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유형임. 이 유형은 복합화 초기에 나타났지만 현재까지도 건설되고 있음.

○ 이 유형은 계획적으로 주방과 식당, 스포츠 홀과 체육관 등 비교적 주민의 이용이 많은 시설의 근처에 거점을 설치하였음.

○ 관리 측면에서 학교가 개방하지 않는 시설과 개방시설 사이에

31) 김정훈, 앞의 문헌, 7쪽.

문을 설치하거나 커뮤니티 거점에는 외부에서 직접 출입하거나 주출입구 옆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음.

▣ 학교시설 및 커뮤니티 룸 유형의 예(example)

: 블랙버드 레이즈 커뮤니티 스쿨(Blackbird Leys Pre School)

○ 이 학교는 옥스퍼드주에 위치하고 있는 복합시설임. 옥스퍼드주의 학교복합시설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하나는 커뮤니티 스쿨 형태이며, 건설 및 유지·관리비의 분담은 미리 협의해서 결정함.

○ 예를 들면, 주정부는 학교시설 90%, 지방정부는 가족센터 부분 10%를 분담하여 건설하였으며, 유지·관리 비용도 그 비율로 분담하고 있음.

○ 또 다른 하나는 학교에 스포츠 홀을 부설하는 형태로 이 경우의 비용분담은 주정부가 학교시설 간부와 스포츠 홀 10%,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유지·관리 비용도 동일한 비율로 분담함.

○ 후자의 형태도 원칙적으로 주간은 학교가 이용하고, 야간은 커뮤니티가 학교도 포함해서 이용함. 블랙버드 레이즈 학교시설의 바닥 면적 1,820㎡, 커뮤니티 시설은 400㎡임.

2. 학교시설+스포츠센터 또는 레저 센터

○ 이 유형은 다양한 종류의 사례가 있으며, 학교와 나누어진 스포

츠 홀과 레저센터, 학교와 일체의 스포츠센터와 데이케어센터, 여러 학교가 서로 사용하는 스포츠센터, 대규모 커뮤니티센터 등의 복합시설임.

○ 학교에 스포츠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커뮤니티 시설로 설치하여 서로 이용하는 유형

○ 스포츠센터와 레저센터(커뮤니티센터)는 명칭을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극장 등 스포츠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레저센터라고 함.

▣ 학교시설+스포츠센터 또는 레저 센터 유형의 예(example)

: 크레스트우드 중학교(Crestwood School, Community Center)

○ 이 학교는 뉴햄프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62,000㎡, 연면적 4,250㎡, 29학급, 약 600명의 중학교와 커뮤니티센터가 복합화한 사례임.

○ 학교는 인근의 쇼핑센터와 마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쇼핑을 갈 때 학교의 중앙 몰을 통행로로 이용하도록 하여 지역과 학교의 교류를 촉진하도록 계획하였음.

○ 이 몰은 광장 겸 통행로로서 학생과 교사 그리고 주민들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결혼식과 맥주 페스티벌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이용되며 학습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

○ 지역주민의 활동 거점이 되는 커뮤니티 센터는 쇼핑센터와 가까운 1층과 2층의 남쪽 끝에 교사(校舍)와 일체로 설치하였으

며, 외부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음. 1층에는 교류 홀이 있고 인접해서 주방·식당이 있음. 2층에는 커뮤니티 바 겸 라운지와 인접해서 교류 홀을 배치하였음.

○ 이 시설은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인근 청소년 클럽과 노인을 위한 장소가 되며, 지역주민들이 평일 오후 6시 이후에 학교를 사용하는 거점 장소임. 또한 휴식 시간에 교사(敎師)가 이곳에 와서 식사를 하는 등 교사의 휴식 장소로도 사용되고, 교사와 주민의 교류장소로도 활용됨.

○ 2층 커뮤니티 바는 평상시에는 커피 등 음료수를 마실 수 있으며, 정해진 일정 시간에는 술 종류도 마실 수 있음. 이것을 영국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중적인 형태로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3. 커뮤니티 스쿨

○ 이 유형은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전제로 학교를 건설하여 학교와 지역이 공유하는 유형

▣ 커뮤니티 스쿨의 예(example)

: 포트힐 커뮤니티 학교(Fort Hill Community School)

○ 이 학교는 뉴햄프주에 위치하고 1978년경에 건설된 주 북서부 최초의 커뮤니티 학교 사례임. 학교는 10학급, 약 800명이고 11세~16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커뮤니티 학교의 발생(1920년대)을 발전시킨 것으로 “커뮤니티 거주자 모든 사람에게 생애학습의 장을 제공한다”는 것이지만, 이 학교 계획에서는 그것을 1980년대 도시주민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참가한 위원회에서 시작되었음.

○ 이런 검토를 통해서 계획된 이 학교는 9개 블록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블록을 독립된 동으로 하는 동시에 연속된 일체의 지붕으로 건설하여 한 학교로 보이도록 디자인되었음.

○ 독립동으로 한 이유는 학교와 주민이 서로 이용하는 경우에 서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임. 9개 블록은 생활블록, 상급학교(13세~16세), 하급학교(11세~12세), 실습, 예술, 음악, 도서, 스포츠 등임.

○ 이용 방법은 학교와 커뮤니티가 협의하고 기본적으로 바(bar)를 제외하고 모든 시설을 오후 6시 30분까지 학교가 우선적으로 사용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커뮤니티도 사용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학교·커뮤니티의 시설이용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설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설비는 주정부가 90%를,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분담하고 유지·관리비는 절반씩 공동으로 하였음.

4. 대규모 복합시설

○ 이 유형은 학교와 10여 개의 지역시설을 공동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복합화한 것임.

○ 학교복합시설이라기 보다는 지역에 필요한 학습과 각종 활동시설을 복합화하고 학교도 이 시설 중의 하나로 구성된 것임.

○ 시설을 집중적으로 복합화하면 이 시설들을 통합하는 운영조직을 갖고 있는 것도 이 사례의 특징임.

▣ 대규모 복합시설 유형의 예(example)

: 써튼 센터(Sutton Center)

○ 이 시설은 노팅햄주의 아쉬필드 지구의 써튼 인 아쉬필드 마을에 1973년부터 1979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한 교육, 복지, 주민서비스(각종 등록 등) 등의 시설을 대규모로 복합해서 건설한 복합시설의 모델임.

○ 이 센터는 부지 21,812㎡, 연면적 17,840㎡이며, 11세~18세를 위한 학교, 레크레이션 센터, 성인교육센터, 청소년센터, 노인과 장애인 센터, 복지서비스의 사무국, 출장소, 직업교육의 사무국, 노팅햄대학 사무국이 있으며, 시설적으로는 주간에 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실과 각종 특별교실, 극장, 아이스링크, 댄스홀, 스쿼시코트, 체육관, 식당, 바, 탁아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설 구성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고령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복합화하였음.

○ 관리운영조직은 일원화되어 있고, 전체를 통합하는 센터장과 주정부, 지방정부, 각각의 다른 분야를 통합하는 위원회 등이 관리·운영함.

○ 이용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학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부분, 학교 이외의 다른 커뮤니티가 이용하는 부분(댄스홀, 스쿼시코트)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음.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음.

5. 별동별 복합시설

○ 다양한 시설을 복합한 대규모인 점에서는 바로 앞에서 언급하였던 '대규모 복합시설'과 동일하며 학교건물과 일체화하여 건설한 반면에, 이 유형은 의도적으로 소규모 건물들로 연결하여 구성한 유형임.

○ 따라서 학교도 몇 개의 건물들로 분리하여 형성되었으며 건물과 건물은 2층 복도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시설을 집중적으로 복합화하면 이 시설들을 통합하는 운영조직을 갖고 있는 것도 이 사례의 특징임.

▣ 별동별 복합시설 유형의 예(example)

: 밀톤캠퍼스 학교(Milton Campus School)

○ 이 유형은 버밍햄주의 밀톤케인즈 뉴타운에 위치하고 있음.

1982년에 건설되었으며, 시설 구성은 12세~16세의 통합제 학교가 2개교(각 학교 정원 600명), 레크레이션 센터, 평생교육 칼리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건설비는 학교 등의 교육시설은 주정부가 분담하고, 레크레이션 센터는 주정부가 15%, 밀톤케인즈구가 10%, 뉴타운개발공사가 75%를 분담하고, 유지관리비는 이용과 협의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하고 있음.

【비교】 한국의 학교복합시설 유형화 사례[32)]

복합화 유형	특 징
단일구성형	단위 학교의 신설·개축 및 리모델링 시 학교복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기존의 학교복합시설 조성 방식
마을맞춤형	구도심 또는 도심 외곽지역의 기설립학교 및 소규모 학교와 지역주민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하는 방식
지역연계형	신도시 개발 및 재개발·재건축 지구계획 단계에서 학교·지역기반시설·문화·체육시설ㅇ르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조성

1. 단일구성형

○ 단위 학교의 신설·개축 및 리모델링 시 학교복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기존의 학교복합시설 조성 방식

○ 학교부지 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적 역할을 증진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연계 도모

32) 교육부,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2023. 3., 22~24쪽.

《단일구성형 학교복합시설 세부 유형화》

세부 유형	내 용
기설립 학교 활용	● 기존 학교시설 내 유휴부지 및 지하공간 등 활용 - 유휴부지 복합시설 활용(이용자 동선 분리) - 운동장 지하공간 주거지 주차장 활용 - 수직 또는 수평(수직+수평 포함) 증축
신설 학교 설립 연계	● 신도시 개발 및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학교 신설 계획 단계부터 학교복합시설을 연계하여 설립
노후 학교 개축 연계	● 노후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

《단일구성형 학교복합시설 사례》

< 구도심 기설립 학교 >





· 광주 능평초등학교
※ 운동장 하부에 수영장, 주차장 설치
수영장 이용주민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

< 신도시 신설 학교 >





· 동탄 중앙이음터
※ 근린공원 운동장 활용으로 발생한 유휴부지에 학교복합시설 조성
지구단위계획부터 지자체·교육청 협의

2. 마을맞춤형

○ 구도심 또는 도심 외곽지역의 기설립학교 및 소규모 학교와 지역주민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하는 방식

○ 학생수 감소에 따라 발생한 학교내 여유공간을 학생 특별활동 공간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문화·체육 공간으로 조성

《마을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세부 유형화》

세부 유형	내 용
구도심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활용	● 학생수 감소로 인해 발생한 학교의 여유 시설[교사(校舍), 체육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기반시설로 활용 - 주민참여형 설계 등 수요를 반영하여 마을 단위의 거점시설로 활용 -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 구성
폐교 활용	● 폐교 시설을 리모델링 및 증·개축하여 학교복합시설로 활용

《마을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사례》

< 농어촌 중심학교 >



< 폐교 활용 >





· 완도초등학교 청해관(수영장)
※ 지역에 부족한 문화·체육·복지 인프라를 집약적으로 설치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



· 삼척 미로정원(미로초 두타분교 폐교 활용)
※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에서 캠핑장, 전시관, 향토식당, 두부체험장 등 운영

3. 지역연계형

○ 신도시 개발 및 재개발·재건축 지구계획 단계에서 학교·지역기반시설·문화·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조성

○ 또한, 지역 대학의 인적·물적 역량을 활용하여 청년 취·창업지원시설 및 주민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성하여 지역 거점화

《지역연계형 학교복합시설 세부 유형화》

세부 유형	내 용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연계	● 신도시 개발 등 지역 기반시설과 학교,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지역단위로 유기적으로 계획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 ※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자(LH 등),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 등이 협력하여 지역을 유기적으로 설계
대학 연계	● 대학시설 및 행복기숙사와 연계하여 문화·체육·복지시설 및 청년 취·창업 지원시설 설치 시 효율 극대화 기대 ※ 대학의 인적·물적 역량 활용으로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 운영 가능

《지역연계형 학교복합시설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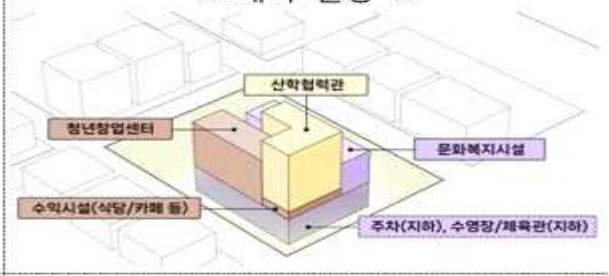
< 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연계형 >





· (해밀학교)유·초·중·고등학교와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한 부지에 설치
※ 지구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 교육청, LH 등이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추진
※ 도서실, 세미나실, 다목적실, 돌봄공간, 실내놀이터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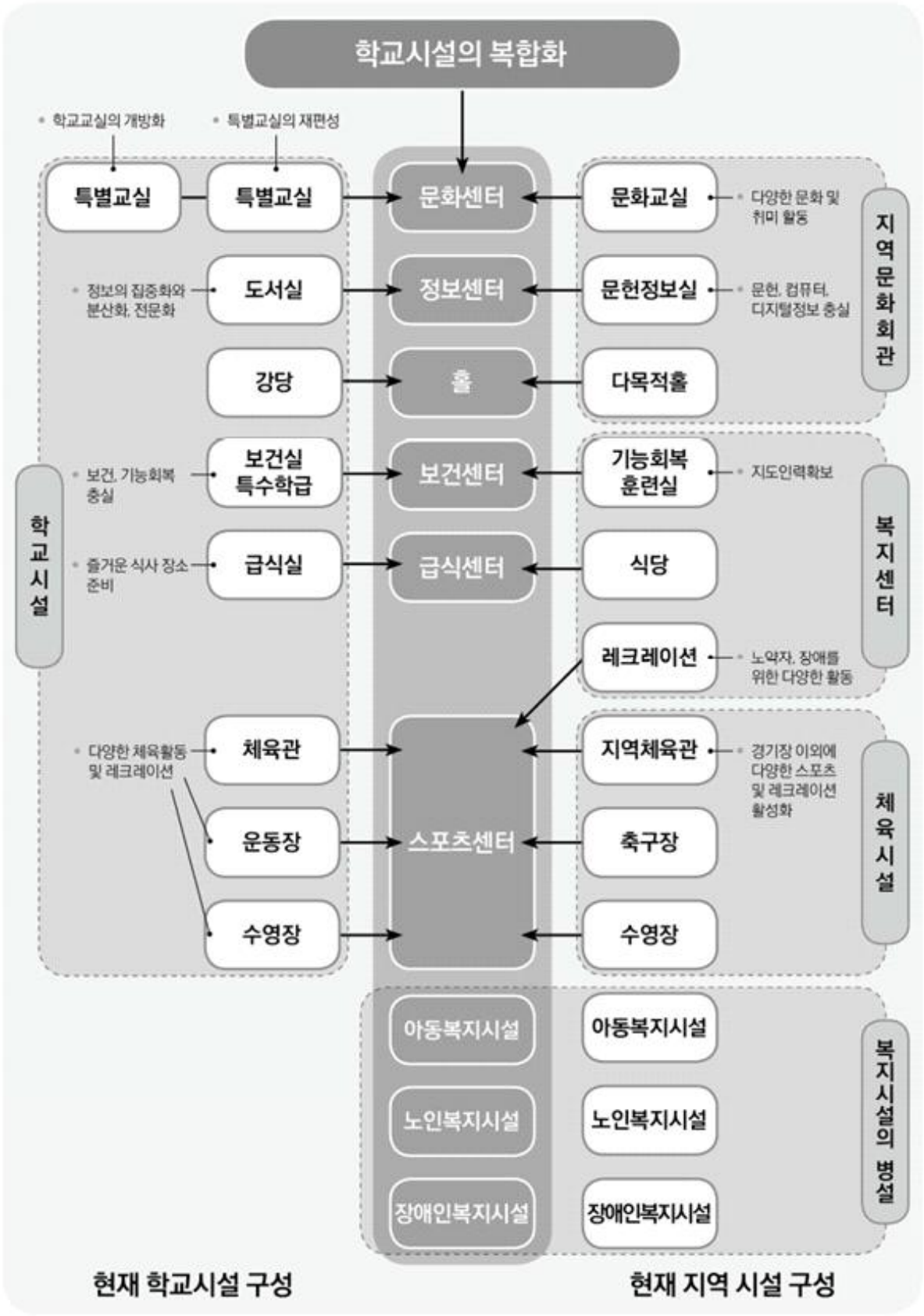
< 대학 활용 >





· (서울 혁신파크) 대학부지를 활용해 민관협력으로 산학캠퍼스 조성
※ 창업지원센터, 기숙사, 컨벤션센터, 복합문화시설, 숙박시설 등

이상과 같은 학교시설 복합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3)]



33) 김현자·최병관·문종덕, "학교시설 복합화 가능성과 한계 분석", 경기도교육연구원, 2017, 18쪽.

Ⅴ 시사점

1 공공성, 지역의 자율성, 주민의 참여가 결합한 도시재생 정책

○ **지속가능 시스템 구축**

- 도시재생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통하는 영국도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까지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는 점을 감안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조급함을 버릴 필요가 있음
- 최소 10년 이상, 기본적으로 20~30년가량 진행되고 있는 영국의 도시재생사업 사례가 시사하듯이, 도시재생사업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인 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임
- 도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

- 영국은 경험을 통해 정부 주도 도시재생사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2000년 이후 영국의 성공사례로 거론되는 도시재생사업은 거의 대부분 민간자본이 주도한 도시재생사업임

- 영국의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자본의 이윤 추구와 사회공헌적 성격이 결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선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도시재생의 생명은 '공공성'에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효율성'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대책은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주민의 자발적 참여성 확보**

- 영국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에 따라 재생사업의 성격은 다르지만, 지방정부와 민간자본, 주민이 치열한 논의를 거쳐 지역의 정체성을 담보한 방식을 찾아서 도시재생을 했다는 점과 도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수립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공통점이 있음
-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에 주민이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영국은 민간자본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주민의 동의를 최우선시하고 있음
- 영국은 주민들 모두가 만족하지 않더라도 공청회를 통해서 거시적으로 동의한다는 전제를 확보해야만 도시재생사업을 시작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공청회를 위해서 관에서 가능한 모든 홍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선 수많은 갈등과 분란이 발생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사업 초기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자율성 확보**

- 예컨대 영국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상 용도변경 등이 안 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서 가장 느리게 변하는 게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법과 조례를 바꿔서라도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음
- 우리도 영국처럼 제도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선이라는 점에 기반해 제도와 규제가 유연해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해 보임
-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현실과 여건 등 정체성을 감안해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오늘날 도새재생사업의 성패는 지역 특성화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바, 이를 위해선 규제 해제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하는 게 필요해보임
- 성공모델로 거론되는 영국의 도시재생은 주로 민간자본이 투입된‘상업적 재생’에서 시작해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재생’으

로 이어진 반면, 전북자치도의 도시재생은 '상업적 재생'을 기대하긴 힘든 '주거지 재생'이나 '문화적 재생'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취할 것은 취하되, 전북자치도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감안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고민**

- 알버트 도크와 테이트 모던의 성공사례는 도시재생사업이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주변의 다른 공간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민해서 함께 아우르는 것이 필요해 보임

2 공공성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앞장서는 문화유산

○ **공공성 강화와 휴식 공간 제공**

- 애쉬몰리언 박물관과 테이트 모던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영국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작품의 무료관람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휴식처이자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보유한 문화자산을 매개로 주변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도 역시 도가 보유한 문화유산이 도민과 관람객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주변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기부문화와 운영비**

- 애쉬몰리언 박물관과 테이트 모던의 운영 주체는 다르지만, 두 기관 모두 후원과 기부금 모집에 매우 적극적임
- 이는 기부가 활성화된 영국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이 운영비 마련을 위해 기부금 모집에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예술작가들 양성 지원**

- 애쉬몰리언 박물관과 테이트 모던은 젊은 문화예술가들의 작품 생산과 활동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젊은 예술가들 양성에 기여하고 있음
-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마련된 문화재생지역에 청년 문화예술가

들의 활동과 작품 생산 활동을 지원할 공간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함

3 학교시설 복합화

○ **학교시설이 지역의 중심센터로서 커뮤니티스쿨 재탄생**

- 학교시설이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및 문화·복지를 위한 지역의 중심센터로서 커뮤니티스쿨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 **한국형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확립의 중요성**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앙정부(교육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과 민간투자사업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복합시설에 있어서 영국 등을 포함한 선도국가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 등을 반면교사 삼아 한국형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① 학교시설 복합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학교시설을 도시계획 수립 시 도시기반 시설로 확정하여 **지역의 중심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② 또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이원화로 말미암아 학교의 설립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등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 학교는 교육청의 관할이고, 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분리되어서는 시설사업 예산 분담과 관리운영비의 분담, 이용방법, 리스크 분담 등의 문제를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의 정비와 협의체 구성, 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해야** 한다.

③ 영국의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과중심**이다. 목표성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데 협상절차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서비스 목표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주무관청과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최고의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각인해야 한다.

④ 또한 사업시행자 선정 시 민간사업자 사이에 경쟁을 벌여 가장 좋은 조건을 내건 업체를 선택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은 가장 좋은 조건을 내건 업체란 과거처럼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 이른바 VFM(예산지출의 효율적 활용)이 높은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이 보장하는 등 모두가 상생(WIN-WIN)할 수 있도록 영국 등 학교시설 복합화 선도국가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반면교사 삼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 도시재생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모색의 필요성 대두

- 학교복합시설은 도시의 앵커시설로서 지역공동체 회복의 중심공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34]을 도출할 수 있고,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할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다양한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① 첫째, 학교복합화 시설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학

34) 이주연, 앞의 부동산학박사학위논문, 114~117쪽.

교복합시설 구성을 보면 교육문화시설은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보육시설과 노인데이케어센터 등 생애주기별 돌봄시설은 필수적인 학교복합시설로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복합시설의 다양화는 이용자 계층의 확대와 학교 기능의 확대 등으로 연계되어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성장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국가의 견인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② 둘째,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도입하는 학교의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까지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한 학교는 대부분 초등학교이며 일부 중학교가 있다. 앞으로는 폐교와 특수학교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인구유출로 도시소멸의 위기에 이른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까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학교 통폐합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는 적고 오히려 인구유출을 심화시켜 지역사회 소멸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SOC로 복합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이쌀.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폐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사례는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폐교는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원도심에서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폐교 위기에 이른 소규모학교를 거점으로 한 학교시설 복합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학교 참여를 이끌어 낸 특수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수학교를 거점으로 한 학교시설 복합화는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특수학교 부족 문제와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셋째, **관리운영방식을 명문화해야** 한다. 학교관계자와 각 시설의 관계자는 물론 이용자가 되는 지역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 속에서 각 시설의 계획, 관리, 운영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개방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필요한 생애주기별 늘봄시설,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에 맞는 안전확보를 위해 개방부분과 비개방부분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의 기능에 공감하는 시민의식과 주인의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지속가능한 학교복합화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것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유를 위해 공동사용협약지침 등을 설계해야 한다.

④ 넷째, 지역주민, 학교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도시재생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각 부처 사이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시설 노후화, 저출산, 고령화, 공공재정 감소 등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재편과 학교시설 복합화를 연계해야 하는데 지역주민 등 관계자들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학교를 지역사회 공공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커졌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서의 안전문제와 복잡한 복합화 시설의 관리·운영 책임소재 등 갈등요소가 존재했던 것이다.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각 부처 사이의 협력체계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시설 복합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도시계획자들이 학교를 공공인프라로 인식하고, 학부모·공무원·교육자·지역주민 등 다양한 거버넌스의 참여와 시민역량을 키우고, 도시와 학교를 연

결하는 장기적 공동계획이 필요하다.

⑤ 다섯째, **도시재생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참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도시재생 관계자의 역량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볼 때,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관계자의 역량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던 방식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강조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에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 해당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학교복합화하는 데에는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 관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시재생 관계자가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거버넌스의 소통을 돕고, 지역사회 현황과 공공시설 및 학교시설의 특성을 파악하는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⑥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재정지원사업의 한계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 주체가 소통하며 민간투자, 지역경제 조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복합화 시설 운영 수익구조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지역경제 회**

생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각 시설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획력과 복합화 시설 관리 과정에서 시설물의 전생애주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역커뮤니티시설로 지속가능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생활권 단위 학교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과 중장기 학교시설 관리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창조해야 한다.

【참고문헌·사이트】

《국 내》

1. 교육부,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2023. 3.
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4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 2024.
3. 김정훈, “학교복합시설의 국내·외 사례 탐색”, 2023년 전북교육정책 오늘 5월호, 전라북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2023. 5.
4. 김현자·최병관·문종덕, “학교시설 복합화 가능성과 한계 분석”, 경기도교육연구원, 2017.
5. 변경화, “학교시설 복합화 제도 검토 및 정책 현황”, 교육녹색환경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2023. 9. 30.
6. 윤석윤,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학교시설 복합화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제15권 제1호(통권 제35호), 한국주거환경학회지, 2017. 3.
7. 이경남,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지방자치·도시행정전공), 2007. 6.
8. 이주연, “도시재생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박사학위논문, 세명대학교 대학원(지역개발·부동산학과), 2020. 8.
9. 정연숙,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학교복합시설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10. 최병관, “학교시설 복합화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3권 제3호(통권 제56호), 2006. 7.
11. 최병관, “영국의 학교 복합화 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사례”,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3권 제4호(통권 제57호), 2006. 10.

《해 외》

1.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 홈페이지(https://www.oasiscommunitylearning.org)
2.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 홈페이지(https://www.rosehillcommunitycentre.co.uk)


의회